

발간등록번호  
11-1311153-000176-01

# 여사록집

## 백고상

— 우수사례집 —

서울특별시·송파구·부산광역시·부산진구·북구·수영구·대구광역시·  
달서구·인천광역시·영도·영주광역시·동구·북구·대전광역시·  
대덕구·영구·서구·유성구·중구·영기동·김포시·성남시·안산시·안성시·  
평택시·의정부시·강원도·강릉시·홍천군·횡성군·영광군·보령시·보령시·  
서산시·논산시·전라북도·전주시·전라남도·담양군·여수시·장성군·  
해남군·관악구·신안군·영광군·영암군·강진군·함평군·포항시·구미시·  
김천시·경주시·안동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영천시·영양군·문경시·  
남원군·정선군·가평군·고성군·양산시·창녕군·함안군·제주특별자치도



백고상 역사찾기 우수사례집

국가기록원

# 백고상 백고상

— 우수사례집 —





# 여사취부기

## 내고상

— 우수 사례 집 —







## 내고장 역사찾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을 9건이나 보유하고 있어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우수한 기록문화 국가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기록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및 중요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열람을 제공하는 등 기록관리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ICA 총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국제기록학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기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록문화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개인의 일상 속 기록물,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기록물 등 여러 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9~2010년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록물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를 밝히는 '기록찾기' 사업의 하나였고, 기록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높이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고장 역사찾기 우수사례집」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고 가치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거나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기관의 우수사례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개인과 지역의 소중한 기록이 모여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곧 국가의 자산이자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기록찾기' 그리고 '기록유산 보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국가기록원장 이 경 옥







# 차례 CONTENTS

발간사 02  
국가기록원장 이경옥

서문 06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에 대하여

1장 우수 기관	16
서울 송파구 (권세만 송파구 기록연구사)	18
강원 철원군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29
충남 논산시 (김정애 논산시 기록연구사)	44
제주특별자치도 (부용식 제주특별자치도 학예연구사)	48

2장 우수 기록물	56
광주 북구	58
경기 김포시	70
경남 고성군	78

3장 사진으로 보는 내고장 역사찾기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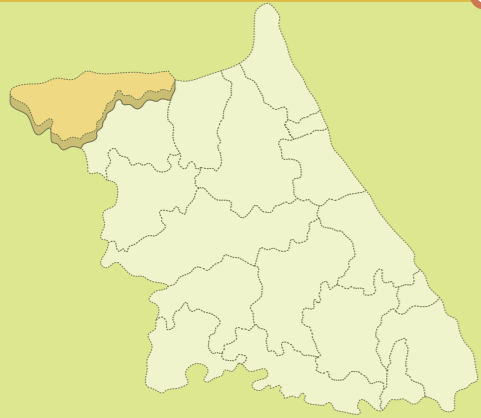
4장 부록	114
가장 오래된 기록물 Best 10	
가장 많이 발굴한 지자체 Best 7	
웹서비스 이용안내	





# 서문

##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에 대하여







#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에 대하여

## 1. 사업 개요

‘지방에 산재한 기록유산을 찾아라!’ 이것이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의 중요한 미션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인 기록물조사를 시작으로,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조사참여자가 함께 기록물 중심의 지방 역사와 문화를 찾아 나서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국가기록원에서는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째는 지방에 있는 민간기록물 중 가치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여 온 국민이 기록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자리 창출과 기록관리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각종 사업 지침을 제공하였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자율적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또 소요인력은 향토연구가, 퇴직공무원, 퇴직교사 및 고학력실업자 등으로 구성하고, 인건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원하였다.

### (2) 사업기간 및 참여기관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서울 송파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제주, 경북 상주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 〈내고장 역사찾기 참여기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09	1	1	1	1	3	5	0	4
2010	1	3	0	0	0	4	0	2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2	0	3	1	7	14	5	1
2010	0	0	3	0	0	4	0	1

\* 총 54개 지방자치단체(2009년 49개, 2010년 18개) 중 경북 최대 참여

###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시기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가급적 근현대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었고, 유형은 문서·책자·지도류·시청각류·박물류 등으로 구분하여 예시를 들었으며, 접촉대상은 개인사가·문중·향교·사찰·교회 등을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가급적 기록물 소유자를 설득하여 원본 기증을 유도하였고,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을 대여한 후 복사·사진촬영·스캐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록물의 맥락과 내용정보도 풍부하게 확보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목록관리 소프트웨어를 제작,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참여기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의 목록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국가기록원에서 이를 취합하여 통합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내고장 역사찾기 표준목록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목록입력 화면



## 2. 사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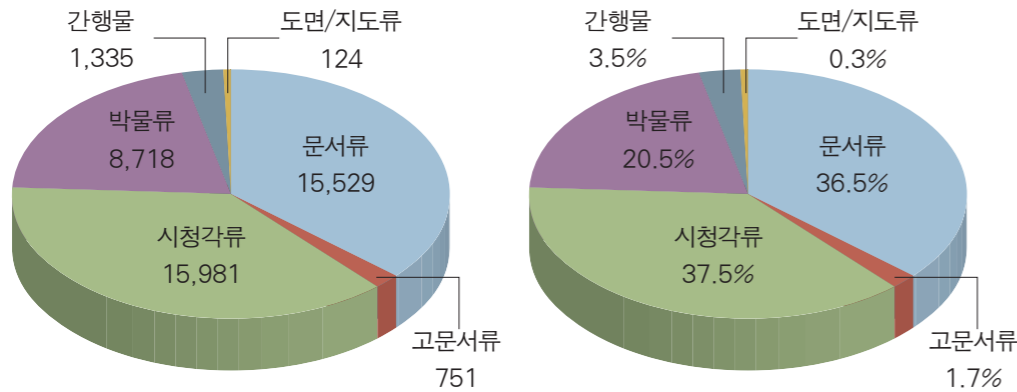
2년여에 걸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의 주요 성과는 54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총 42,438권의 기록물을 발굴하였다는 것과 연 4만여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 (1) 기록물 발굴현황

기록물 유형별 현황을 보면 주로 문서류(36.5%)와 시청각류(37.5%)가 많았고, 일부 박물관(옛날 물건) 및 고문서류도 있었다.

〈기록물 유형별 구분〉

유형	문서류	고문서류	시청각류	박물관	간행물	도면/지도류	합계
수량	15,529	751	15,981	8,718	1,335	124	42,438
비율	36.5%	1.7%	37.5%	20.5%	3.5%	0.3%	100%



그러나 기관 자체가 보유한 기록물이 대부분(65%)이었고, 새로 발굴되어 기증(19%)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집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록물 수집별 구분〉

수집	기증	위탁	구입	사본	보유기록
수량	6,739	1,935	1,947	1,693	22,570
비율	19%	5.5%	5.5%	5%	65%

주제별 현황을 보면, 행사 관련 기록이 31.3%, 지역특성을 표현한 기록이 18.9%를 차지하였으며, 이밖에도 지역발전·문화/민속·인물·사건/사고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다.

〈기록물 주제별 구분〉

주제	문화/민속	인물기록	행사기록	사건/사고	지역발전	지방연혁	지역특화주제	기타
수량	2,928	2,614	10,913	133	5,673	2,170	6,594	3,859
비율	8.4%	7.5%	31.3%	0.4%	16.3%	6.2%	18.9%	11.0%

### (2) 기록물 발굴사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의 기록물들도 많이 발굴되었는데, 그중 주요 기록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물 발굴사례〉

자치단체명	주요 기록물
서울 송파구	- 송파문화원 소장 송파 옛 모습의 사진류 - 구청 소장 김수환 추기경 내방, 풍납토성, 잠실빌 등 시청각 - 신천교회 소장 신천교회 앞, 예배모습, 여름성경학교 등 시청각
광주 북구	- 건국동 주민센터의 유물자료 목록, 아름다운마을 문서류 - 광주비엔날레의 제1회~최근까지 비엔날레 관련 시청각류 - 문병란 시인의 육필원고, 조선시대 영제현판, 이순신 서찰문 등
경기 김포시	- 권오익의 영농일지(1950), 유만종의 영농일지(1960) - 윤자일 소장 고문서류(1749 진사시험 제출 답안지) - 신석청년척독, 상환기일 예고장 등 민경태 소장 고문서류 - 맷돌, 호롱, 마패, 호패, 바람개비 등 개인 소장 옛날 물품류
강원 철원군	- 수복지구 지방행정 정착자료 - 민통선 북방지역 개척자료
충남 논산시	- 역대 시장 군수의 사진, 축사, 격려사 모음 - 1905년 개교한 강경중앙초교,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고교 사진 - 논산시 이모저모, 70년대 생활상을 나타낸 사진류
경북 상주시	- 면사무소 소장 독립선언서, 국민교육현장 - 상주박물관 소장 동학가사목판, 동학취지서, 필원잡기(1487 목판본) - 자전거박물관 소장 콘벤트리형 삼륜자전거
경남 고성군	- 김동관 소장 대한민력(1967), 완문 등 고문서(1593) - 거류면사무소 소장 독립선언문 - 고성향교의 고성향교유생안(1879) - 이영국 소장 당동 공룡발자국 사진(1991)
제주	- 이은상의 수필집(1936) - 도내 초·중·고 학교 배지(1970년대) - 북한 고위직 제주방문 사진 - 오렌지 수입 반대 시위 사진



### (3) 기록물 활용사례

발굴된 기록물은 주로 사진집, 백서 등 책자 발간이나 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에 활용되었는데, 주요 활용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록물 활용사례〉

자치단체명	주요 활용사례
서울 송파구	사진집 발간 및 인터넷 기록관(3D) 운영
충남 논산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결과보고서 발간
제주	수집 기록물 영인본 제작, 제주지방자치사료관 개관(2011. 7)

## 3. 활용 및 홍보

### (1) 기록물 목록 웹서비스

국가기록원에서는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록물 목록을 종합관리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내고장 역사찾기〉 코너를 구축하였고, 곧 웹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코너에서는 지역별·유형별로 기록물 목록을 조회해 볼 수 있고, 특히 내고장의 옛모습, 내고장 발전, 내고장 축제, 내고장 명소·명물, 내고장 사진·사고 등으로 구성된 사진 갤러리에서 지역별 이모저모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지역별 기록물 검색〉

번호	자치단체명	기록물 제목	문서유형	생산연도	수령	주제분류
2436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차역의 인티뮤	서형각류	1995		인물기록
24361	부산광역시 수영구	비대관장 복원	서형각류	1995		인물기록
24360	부산광역시 수영구	비대수원현장확인	서형각류	1995		인물기록
24359	부산광역시 수영구	판상회	서형각류	1995		인물기록
24358	부산광역시 수영구	강변도로 준공	서형각류	1995		인물기록
24357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철도시장 방문	서형각류	1995		인물기록
24356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 단애 구민 집회	서형각류	1997		인물기록
2435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역시장 방문	서형각류	1997		인물기록
2435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속박물관서 푸민과의 대화	서형각류	1998		인물기록
24353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년하례	서형각류	2000		인물기록

### 〈사진 갤러리〉



### (2) 우수사례 홍보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기록물 발굴 및 수집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 수집보존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여 사료관을 개관한 우수사례도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4. 향후 발전방향

어제처럼 오늘도 개인의 삶은 지속되고 있고, 그 개인이 속한 지역과 국가 또한 역사적 흐름에 놓여 있다. 개인과 지역의 기록물은 날개로 흩어져 있지만 이를 컬렉션화하고 여기에 세월의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이 기록물에는 특별한 보존가치가 생긴다.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은 '기록물을 통하여 역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록물 발굴을 위해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소재 민간기록물 조사를 계속 할 것이고, 기록문화 홍보를 담당할 민간기록조사위원 운영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추진 종합결과〉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참여기초단체	1	3	1	1	3	5	0	6
기록물 수량	5,030	211	0	0	2,174	3,840	0	7,244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기초단체	2	0	4	1	7	14	5	1
기록물 수량	3,621	0	81	0	717	18,250	744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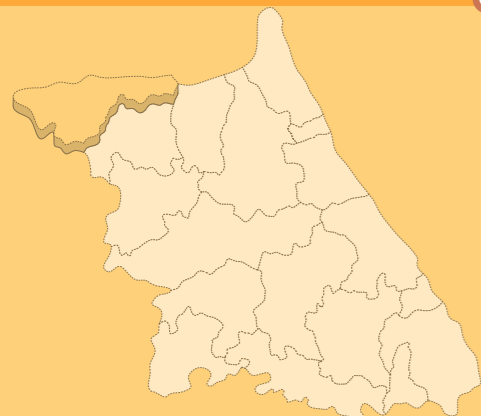
시·도	기초단체	총 수량	문서	고문서	시청각	박물	간행물	도면·지도
합계		42,438	15,529	751	15,981	8,718	1,335	124
서울	송파구	5,030	2,484		2,546			
부산	부산진구	138	21		117			
	해운대구	23	23					
	수영구	50	9		41			
대구	달성군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인천	옹진군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광주	동구	96	44		50	2		
	남구	67	67					
	북구	2,011	1,140		41	744	86	
대전	대덕구	270	269			1		
	동구	19	19					
	서구	2,572	2,572					
	유성구	353	353					
	중구	626	626					
경기	김포시	1,271	157	90	48	970	2	4
	성남시	253			1	228	18	6
	안산시	2,663	1,758		436	28	441	
	안성시	477			477			
	평택시	300	285		15			
	의정부시	2,280	2,204	8		68		
강원	강릉시	3,325	283	47	637	2,202	58	98
	철원군	296	296					

충남	공주시	81	49		13	4	10	5	
	보령시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서산시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논산시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전북	전주시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전남	담양군	37	37						
	여수시	274	209	6	30		27	2	
	장성군	25		24	1				
	해남군	381	209		161		11		
	곡성군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신안군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영광군	목록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							
경북	상주시	13,946			9,878	4,068			
	칠곡군	995	241		754				
	포항시	347	80	159	108				
	구미시	828	104	128	436	1	159		
	김천시	892	697		1	194			
	경주시	578	220		4		354		
	안동시	270		239		31			
	영주시	4	4						
	예천군	10	4				6		
	봉화군	11	3		1		7		
	영천시	5	3			2			
	영양군	19	19						
	문경시	339	107		10	122	100		
	군위군	6	1	1		4			
	경남	거창군	118	118					
		고성군	440	172	35	126	49	49	9
양산시		57	57						
창녕군		6	6						
함양군		123	53	14	49		7		
제주		526	526						



# 제 1 장

## 우수 기관



서울 송파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 송파구의 3D로 만나는 가상기록관



권세만 송파구 기록연구소

## 1. 서울 송파구 역사기록물의 구축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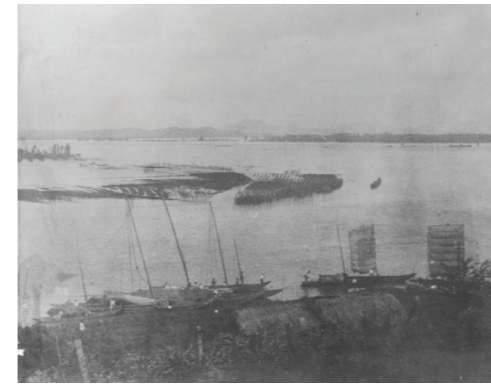
3D 가상기록관은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정보자원과 기록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실업자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송파구는 역대 주요사업에 참여한 퇴직공무원·민간참여자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지자체 연혁에 관한 주요 기록물, 주요 인사·관내 주민 등의 인물기록, 송파구에서 존경받는 유명인사의 육필원고 등 개인기록, 기타 희귀기록 등을 발굴하였다.

이는 소실 위기에 처한 중요 역사기록 콘텐츠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며, 주민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고취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 이 자료들은 교육용 콘텐츠로 구축하여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육학습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2. 내고장 역사찾기로 확인한 송파의 어제와 오늘

송파구에서는 그동안 내고장 역사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기록 콘텐츠를 수집하였다. 학술연구, 희망근로 등 연 인원 5천여 명이 투입되어 관내 중요 사진·민속자료·구술



1930년대 송파 나루터



1960년대 탄천 부럼마을 나루터



1967년대 마천동 성당



현재의 마천동 성당

채록·사료연구 등 6천여 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디지털 가공을 통하여 3D 가상기록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방에는 무수히 많은 기록정보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원본 자체의 체계적인 소재정보 파악 및 보존관리가 미비해 기록관리 및 수집,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지역의 발전과정과 시대상 반영 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단순 보존만을 위한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된다. 보존의 연구만이 아닌 활용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에서 발굴한 우수한 역사기록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 기록의 종합적인 분석, 사실 추출, 역사기록 외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실 보완,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등으로 과거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송파구에서는 역사기록 콘텐츠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내고장 역사찾기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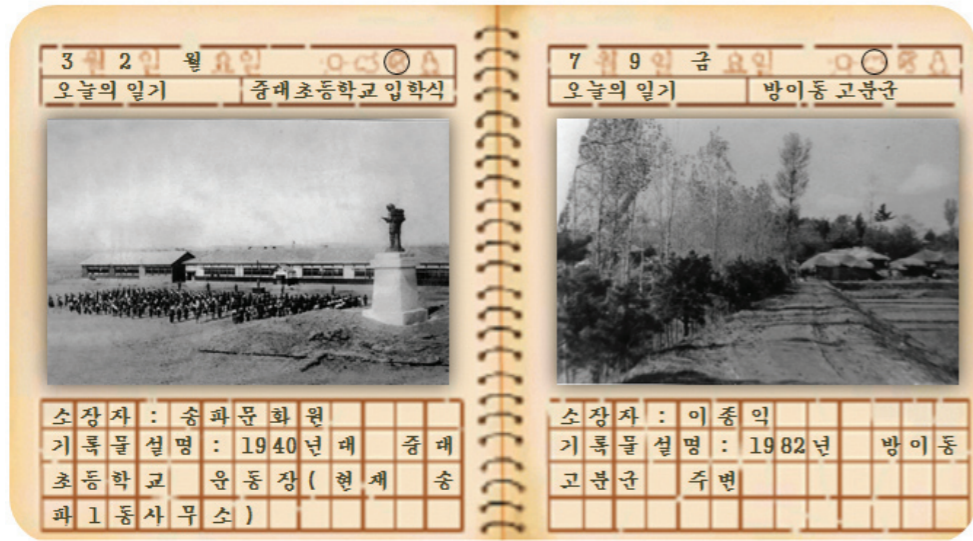


1959년 문정동 모습



현재의 문정동 모습

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고장 역사를 더욱 충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콘텐츠형 기록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



송파의 모습

아무리 소중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 2004년, 수원 의 한 공사장에서 파지를 수집하는 할머니의 수레에서 발견된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 그간 이름만 알려졌던 이 첩이 폐기 직전 한 수집가의 눈에 띄어 약 200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모 방송사의 TV프로그램에서 1억 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일이 있다(공감코리아 칼럼&정책 박상덕 국가기록원장 기고, 2009년 9월 22일).

송파구에서는 이처럼 소실 위기에 처한 역사기록 콘텐츠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3D 가상기록관이라는 주민과 함께하는 서비스를 구상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주민들은 민간기록의 보존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 및 주제에 대해 송파지역 연구자료 생산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 3. 송파의 역사찾기와 함께한 업창섭 前 송파구 문화재위원장

#### 어린 시절의 송파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송파구는 예전엔 서울 변두리의 농촌도시로, 교통이 불편해서 광나루까지 도보로 움직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1988년에 열린 올림픽 이후,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 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930년대 석촌리 홍수



1984년 풍납동 대홍수

지금의 송파나루공원 자리에는 큰 규모의 송파5일장이 있었는데,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은 모두 송파시장에서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송파에는 큰 홍수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1925년에 큰 장마가 와서 피난민들이 언덕에 위치한 공동묘지 터로 피난을 갔다고 하더군요. 이후, 1930년대에도 석촌리에 홍수가 났고, 1984년에도 풍납동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 ‘송파’라는 이름의 선정과정은 어땠습니까?

1987년 당시 송파를 잠실, 오륜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문화와 역사가 더 소중한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도 방송에 출연하여 송파 유지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앞으로 송파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성백제부터 시작했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송파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함께 하는 송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 송파의 역사와 함께한 기록들

고려시대부터 불렀던 지명, 송파.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는 뜻의 '송파(松波)'에서 유래한 송파는 한강 연안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선사시대부터 신석기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고대국가 성립과 함께 고조선의 생활무대가 되기도 하였고, 백제의 시조 온조왕부터 21대 개로왕까지 약 493년간 백제의 수도로 자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송파구 역사찾기를 통하여 발굴한 기록은 모두 6천여 점인데, 이 모든 자료는 3D 가상기록관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3D 가상기록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활용을 모토로 하여 '송파의 역사, 함께한 기록'으로 과거에서 현재로의 변천과정을 기록화하였으며, 지역의 성장모습과 지역의 역사구축 장으로서 일류 지방자치 구현의 발판이 되고자 한다.

〈송파의 역사기록 콘텐츠 현황〉

연번	제목	생산년도
1	일제시대 중대초등학교 뒷산	1939년
2	중대 초등학교	1940년
3	문정초등학교 앞	1950년
4	이동의 한강(올림픽 공원)	1950년
5	천사의 집(현 문정1동 정낙교회 부근)	1950년
6	천호동 한강나루터(광진교)	1950년
7	송파강(현 방이사거리 부근)	1952년
8	부리도(잠실 7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953년
9	송파장터(현 송파동 95번지)	1954년
10	부리도 섬마을의 농경지	1955년
11	송파장터의 전경	1955년
12	송파구 나루터	1956년
13	전기농장(현 송파동 성지아파트 부근)	1958년
14	중대면 사무소 앞(송파동 95번지)	1958년
15	원두박(현 방이2동 방이시장)	1960년
⋮	⋮	⋮
6012	현 석촌호수	1990년
6013	현 송파동 95번지 마을마당 옆	1990년

## 5. 3D로 만나는 송파 가상기록관

### (1) 가상기록관 맛보기

송파 3D 가상기록관은 송파구의 랜드마크지역에 대한 가상세계 구현과 사진자료, 영상 등을 등록해놓은 인터넷 기록관이다. 가상기록관에서는 관내 주민이 원하는 기록을 검색 도구를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한 주제 사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D 가상기록관 인터넷 기록관



## (2)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3D 가상기록관에는 송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모두 담겨져 있으며, 수집한 콘텐츠를 가공하고 재분류함으로써 활용성도 확대하였다. 또 초기부터 정확한 기준과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콘텐츠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꾀하였으며, 이용자에게 친숙한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3D 가상기록관 내부화면

뿐만 아니라 주제별·유형별·시대별·종류별 분류를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단순한 사진자료로 보여주기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생활, 초등학교 6년 동안의 모습, 송파구 어제와 오늘, 마천동 성당이 지어지기까지 등 감성기반의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여 서비스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3D 가상기록관을 관내 초등학교에 시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대상의 반영모습과 중요 연혁·관련 실물기록 등은 지역의 역사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감성적 스토리텔링 가미한 '송파구 어제와 오늘'



▶ 송파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송파나루공원 자리에는 작은 나룻배들이 사람들의 발이 되어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배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싣고 다니던 꼭 필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 조용한 마을 석촌리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던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배로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구조하고, 배 위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흡사 무더운 날씨를 가진 외국의 수상가옥이 생각날 정도였고, 사람들의 마음도 걱정으로 가득했었지요.

▶ 오랜 역사를 가진 중대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여러 학생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앞 친구와 줄을 맞춰 서서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에 귀 기울이던 그 당시의 추억 속으로 잠시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마을 내에서 익숙한 이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을 일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름도 생소한 리사무소를 기억하시나요? 전문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았던 곳이지만 그래도 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 얇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낮은 지붕의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던 작은 동네, 문정동. 높은 건물 하나 없는 그곳에는 늘 잔잔한 고향의 정취가 있어 좋았습니다. 논 옆으로 길게 나있던 소박한 언덕길에서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늘 반겨주었지요.





▶ 지푸라기로 만든 원두막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던 때가 생각나나요? 원두막은 여름이면 우리가 즐겨 찾던 익숙한 놀이공간이었지요. 지금은 놀거리·볼거리가 많아서 꼭 이곳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수박과 참외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우리만의 장소였습니다.

▶ 오래 전 홍수가 났던 석촌리에 이어 풍납동에서도 1984년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한강과 상면하고 있어 항상 수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마을이었죠. 1925년과 1972년 이래 최대의 물난리를 몰고 온 1984년 9월 1일과 2일. 9월 1일 새벽, 상류의 화천·의암·춘천·청평·소양·팔당 등 6개 댐이 만수위에 육박하자 가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한강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강 주변의 저지대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배수지도 범람해 침수가 되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겁이 납니다.

▶ 논두렁 발두렁 사이. 그 많던 메뚜기떼, 그리고 오순도순 모여 있던 아담한 오두막집. 지금은 이름도 생소한 평화촌의 옛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작은 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던 정다운 이야기들, 친구들과 놀이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예전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그 시간, 그곳의 정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송파구에 있었던 유일한 동사무소 앞에 자리를 잡은 노인정에서 찍은 사진을 들춰봅니다.



▶ 송파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계획하면서 주변부지 정리를 시작해 작고 낮았던 건물들이 높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바뀌었고 녹지조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설립은 그야말로 송파구에 있어서는 혁신이었죠. 옛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정겨움은 없어졌지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 종합운동장은 198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잠실지구는 지금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뽀뽀이 자리 잡은 아파트들과 잘 닦아진 도로까지, 신도시가 탄생하였고 많은 인구가 밀집하였습니다.

▶ 1992년 송파구청사를 준공했습니다. 22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고건 시장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구청 보건소가 함께 들어선 이 청사에는 5개의 회의실을 비롯하여 자료실·체력단련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송파구의 전반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의 송파구가 되기까지는 앞에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이 차츰 변화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100%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송파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그때 느꼈던 소박한 모습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전의 것을 기반으로 더욱 나아지는 송파구의 모습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3D 가상기록관을 이용한 어린이들의 댓글 보기

더 많은 자료수집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교감을 높이고 문화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효과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임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어린이들이 직접 달아놓은 댓글들이다.



이태영 : 게임처럼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전진우 : 학교에서 알려준 내용보다 좋은 것도 있었어요.

정우진 : 숙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사진자료와 설명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박현우 : 와~ 좋다~

강승석 : 예전에는 이랬어요?

임동규 : 공원이랑 분수가 멋있네요.

남궁준 : 신나요!

김지현 : 진짜 예뻐요~



김현주 : 다른 곳은 없나요? 가보고 싶는데.



## 강원 철원 민통선 마을의 평화 이야기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철원군은 전 지역이 수복지구다. 수복지구는 6·25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 후 남한 즉, 대한민국으로 편입된 지역을 말한다. 3년간에 걸친 치열한 전쟁으로 철원지역은 초토화되어 인구 2만 명이 거주하던 구 철원읍 시가지는 잿더미로 변했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도 80% 이상이 뿔뿔이 흩어졌다. 철원의 현대사는 삶의 터전과 주민,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역사적 공백기였다.



일제시대 번성했던 철원읍 전경

\*김영규 : 강원도 철원군의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참여자

## 6. 기록관리 분야에 획을 긋고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

지금까지 송과구 역사찾기와 3D 가상기록관 구축을 통하여 많은 역사 콘텐츠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기록정보 검색 이외에도 콘텐츠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분석을 통한 사실보완과 기록의 가치평가 업무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함께할 수 있는 기록유산 만들기를 위한 기록의 가치와 소중함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기록을 통한 다양한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기록관리 분야에 획을 긋는 것이고, 기록을 소중히 여기던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또 단순한 콘텐츠 구축을 넘어 체험을 통한 역사 콘텐츠의 활용까지 연계함으로써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자산 구축과 교육을 실현한다면, 기록 콘텐츠 기반의 21세기 문화도시 구현도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철원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옛 고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곳에는 휴전선이 그어지고 DMZ(비무장지대)와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어 군인과 군부대만 들어섰다. 세상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도 38도선이나 휴전선에 묶여있는 철원군의 운명은 바뀐 것이 없었다. 자신의 농토를 되찾는 데만 20여 년 세월이 필요했고, 마을 출입이 자유로워진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철원을 시가지

한반도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38도선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후처리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치적 편익에 의해 그은 선이다. 휴전선(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해 ‘싸움을 잠시 쉬기로 하자’고 미·소·중 강대국의 합의로 그어진 선이다.

그 길이는 249km(155마일)로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간성 북방에 이른다. 남북은 휴전선 옆으로 또 하나의 선을 그어 쌍방이 군대 주둔이나 일체의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하고,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폭 4km 완충지대를 만들어 비



철원북방 DMZ 안 태봉국 도성터

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라 이름 붙였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약 990km(3억 평)에 달하는 방대한 땅이 비무장지대란 이름으로 간혀 있다.

비무장지대 외곽에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철책선이 쳐져 있고,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5~20km 남쪽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 사령관은 민간인 귀농을 규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고, 휴전선 일대 군 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금지시켰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휴전선을 따라 총 면적 1,528km<sup>2</sup>에 이르는 또 다른 띠가 형성된 것이다.

경기도 강화·김포·과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소위 접경지역의 213개 리가 이 띠 속에 갇혔다. 1958년 6월부터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됐고, 한국군은 군 작전이나 군사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을 허용했다. 그리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Civilian Control Line)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일일 영농출입 민통선 검문소 통과 모습



철원평야(대마리)와 인근 지리밭





황무지였던 유곡리 일대 농경지

수복 초기에는 미군정이 새롭게 건설한 민통선 밖 정착촌에 머물며 일일출입허가를 받은 후에야 자기 농토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철에는 출입허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빈번했고, 군부대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형국에서 작전상 불가하다고 맞섰다.

안보가 최우선인 1960~1970년대에는 모든 주민과 관공서가 관할 부대장의 눈치만 봐야 했다. 어떤 이는 자기 논에 조금이라도 물을 더 댈 욕심에 몰래 움막을 짓고 논에서 하루, 이틀 묵숨 걸고 숙박하기도 했다. 그런 일이 빈번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비등하자 군 당국에서는 농번기에 한해 일시적인 체류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자기 농토가 있는 남자들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군 천막에서 유숙하는 형태였다. 이들은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민통선 밖 집으로 나와 식량을 조달하거나 식구들을 만나곤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은 군인과 똑같이 아침저녁으로 점호를 받으며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옛 김화군의 중심지 생창리



1979년 대마리 민복지구 취락구조 개선사업 완수

전쟁의 상흔이 가라앉고 체제가 안정되면서 주민들의 고향 입주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휴전선 인근 수많은 황무지와 유휴지를 개척해 농지확장은 물론 식량증산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고,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체제도 강화하고 대북심리전 우위를 확보할 요량으로 민북마을(선전마을)을 건설하게 된다.

민북마을은 민통선북방마을의 준말이다. 민북마을은 일반적으로 전락촌이라고 통칭되는데, 실제로는 각 마을의 입주배경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그 명칭으로는 초창기 '자립안정촌'과 이후에 가장 많이 건설된 '재건촌', 박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과주 대성동과 철원 유곡리 두 곳에만 시범적으로 건설된 '통일촌' 등이 있다.

민북마을이 크게 3부류로 구분되는 기준은 조성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을 조성과정에 정부가 얼마나 깊숙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시기적으로는 뒤로 갈수록 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철원군에서는 1959년 철원읍 월하리 72세대를 필두로, 1960년 관전리 32세대, 근남면 마현1리 66세대, 1968년 철원읍 대마1리 150세대, 대마2리 97세대, 근남면 마현2리 60세대, 1970년 김화읍 생창리 100세대. 1973년 김화읍 유곡리 60세대, 1974년 갈말읍 동막리 50세대, 정연리 120세대, 1979년 동송읍 이길리 68세대, 양지리 100세대 등 총 14개 민북마을을 조성하여 975세대를 입주시켰다.

그러나 초기 입주과정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공사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1970년대 후반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1979년, 대대적인 민복지구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완수되면서 민북마을은 당시 언론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문화촌'이라 칭송할 정도로 발전한다.





빈집으로 폐허가 된 양지리 주택



2008년 DMZ 생태평화비전 선포식

철원 북방 옛 금강산 거던 철길

그렇게 개척과 성장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민북마을이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커다란 시련이 닥치며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개척정신으로 터전을 마련한 입주 1세대들은 이미 2/3 이상 별세했고, 2세대들은 농가소득 저하로 고전하고 있다. 이농현상 심화로 마을인구는 격감했고, 급격한 노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다.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오래고, 40대 노총각이 마을마다 즐비하며, 대부분의 마을 초등학교는 폐교되었다. 빈집이 늘고 폐가가 방치되어 황량함마저 감돈다.

1960~1970년대 입주 초기 아무도 찾지 않던 황무지를 지뢰를 헤치며 목숨 걸고 개간해 문전옥답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불쑥 땅임자라며 나타난 불청객으로 인해 마을엔 편지풍파가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 문제라며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땅을 빼앗기는 일이 속출했고, 2004년 전방을 휩쓴 부동산 광풍이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최근 민북마을 근처에는 통일 대비 평화신도시 기반 조성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록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철원의 번영을 이끈 경원선 철도 연장 복원사업도 한창이다. 지난 2008년 9월, 양지리 평화전망대에서는 환경부와 강원도가 'DMZ 생태평화비전'을 선포하며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계획을 구체화했다.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철원평화문화광장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6·25전쟁의 산물이자 냉전의 상징인 DMZ를 남북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향후 초미의 관심사다.

대내외적 환경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그 중심인 민북마을은 아주 고요하다. 이제 총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개발했던 접경지역 민북마을, 다시 한번 정부가 나서서 통일의 전초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숙원인 민북마을 토지소유권분쟁 해결도 지지부진하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북마을 개척 사업에, 그저 열심히 일하면 내 경작지가 생길 거라는 소망을 갖고 일평생을 살아온 입주 1세대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북지구 개척이 철원군 재건이고, 민북마을 변천사가 철원의 현대사다. 6·25전쟁의 산물인 휴전선과 DMZ, 민통선 그리고 그 안에 건설된 민북마을 모두 시대의 산물이고 역사의 산물이다. 일부 마을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빈집이 늘어 폐허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척의 주인공들인 입주 1세대들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있어 이제 민북마을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민북마을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개척마을,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준 고향마을, 국가안보에 일익을 담당한 선전마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완성마을 등으로 기억될 수 있다. 하지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물꼬를 튼 통일마을로 기록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민북마을이 아이들 뛰어놀고 어르신들 웃음 넘치는 평화마을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 1. 마현1리 재건촌

마현1리는 1959년 가을 추석에 불어 닥친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 이재민 66세대를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경우다. 1960년 4월 4일 울진초등학교에서 고향 친지들의 환송을 받은 후 23대의 군 트럭을 타고 황성~춘천~화천을 거쳐 500여km(1,400여리)를 지나 3박 4일 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최전방 철책 아래 황무지에서 철통같은 감시 하에 천막생활을 하며 변변한 장비도 없이 손수 농지를 개간했다. 4월 7일, 도착한 이들을 반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닌 역새발만 무성한 황무지와 60개의 군부대 천막이었다. 도착 후 12일 만에 4·19





마현리 입주 당시 주택



입주기념비



야생화가 무성한 마현초교



말고개에서 바라 본 마현리

20세대가 적은 60세대로 구성됐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기브츠'를 모방해 만든 유곡리는 전선 방위는 물론 유희경지 활용을 목적으로 대북한 우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건설된 선전 마을 통일촌이다. 북녘 오성산이 코앞에 보이는 유곡리는 이전의 재건촌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 가구당 500만 원 이상의 거금을 지원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만든 인공마을이다.

당시 5군단 예하부대에서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집과 논밭을 무상으로 2만여㎡(6,300평) 분양한다기에 많은 후보자가 몰려들어 자격심사가 까다로웠고, 선발된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정신교육과 영농교육 등 집체교육을 받기도 했다. 입주 초기 입주주민들은 매일 저녁 군 보안부대원들의 점호를 받으며 생활하였고, 군 출신과 일반 농민 출신 간에 이질감으로 마을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유곡리 통일촌 입주기념식



유곡리 입주 당시 주택

그러나 1982년부터 93년까지 시행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주주민들은 피땀 흘려 개간한 옥토를 모두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만 했다. 입주할 때 정부에서 인정한 경작권만 믿고 소유권 없이 개간한 토지를 두고 나중에 나타난 소유권자와 벌이는 소유권 분쟁은 유곡리 주민들에게 끝없는 좌절감을 맛보게 했다. 이런 와중에

2000년과 2005년 민복마을을 휩쓴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유곡리 주민이 소유한 유곡리 땅은 이제 30%도 채 안 될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다.

가 터져 지원을 약속한 도지사와 군수는 모두 교체됐다. 행정기관의 보호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 농지를 분배하고 삶의 터전을 닦았다. 입주 1세대 중 현재 생존해 있는 남자는 이제 1명뿐이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가장 척박한 오지로 통했던 마현리가 최근에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예전에 논 면적이 적어 소득이 낮았던 산간 마을이 이제는 대규모 하우스 원예농업으로 번성해 부촌이 되었다. 마현리 승리전망대에 오르면 금강산 가던 철길을 또렷이 볼 수 있으며, 화천으로 통하는 말고개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하고 있다.

## 2. 유곡리 통일촌

1973년 경기도 파주 통일촌과 같은 날, 동시에 입주한 유곡리는 파주 통일촌 80세대보다





유곡리 통일촌 버스 개통



유곡리 통일촌 마을 입구



대마리 마을회관의 군인들 경계 근무

### 3. 대마리 향군촌

대마리는 남북 간 체제 경쟁과 대립이 극에 달했던 1968년 민통선 북방지역 농지개간과 정부의 재건촌 건립 계획에 의거, 반공정신이 투철한 제대 군인과 지역 주민 위주로 선발해 150세대가 입주한 경우다. 주민들은 낮에는 농지개간에 힘썼고 밤에는 안보일선에서 총을 들고 적의 동태를 감시했다. 농지를 개간할 때 지뢰와 폭발물로 인해 팔다리를 잃고 불구자가 된 이도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구호나 보상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다. 오로지 그들끼리 피땀 흘리며 뿔뿔 뭉쳐 난관을 이겨 나갔다.

그런데 어렵게 농토를 일구어 자리를 잡자 이번에는 개간한 농지의 원소유자들이 나타나 토지소유권을 주장했다. 전쟁으로 지뢰밭과 황무지로 변해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내놓으라는 것이다. 농지경작권을 인정해줄 테니 걱정 말고 입주를 하라고 권유했던 정책책임자들은 지금 아무 말이 없다. 그들의 피해를 누가 치유해줄 것인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청와대에서도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마을 안쪽 공원 개척비에는



대마리 입주 초기 경운기 수령



민북지구 개발사업 준공식



대마리 마을 개척비 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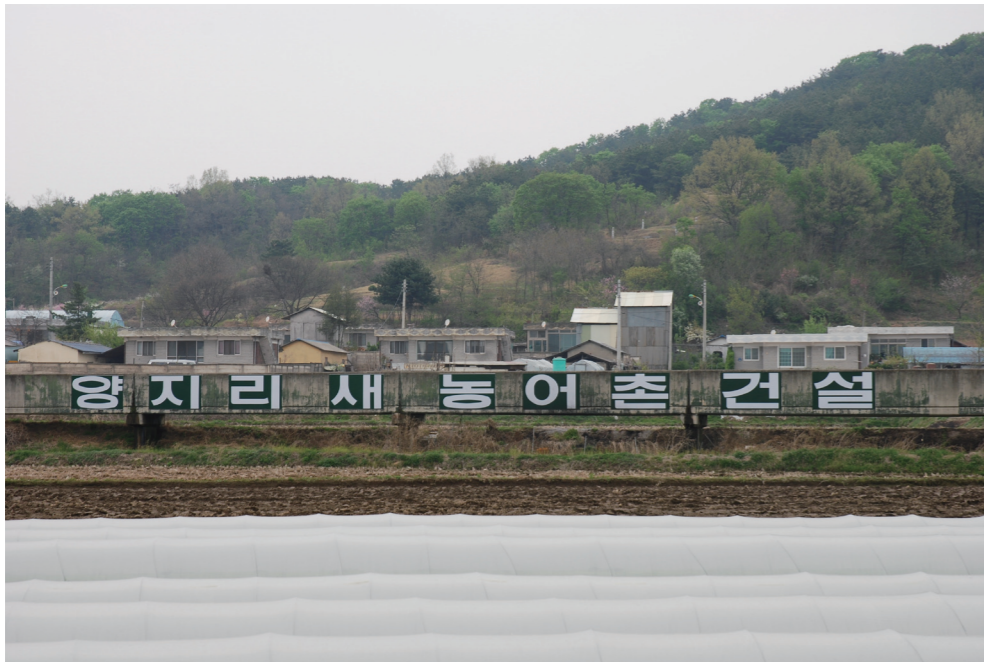
‘피 흘려 찾은 땅, 피땀 흘려 개척했다’라고 적혀 있다. 대마리 마을회관에는 정면에 ‘자립갱생(自立更生)’이라는 큰 현판도 걸려 있다. 이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언제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느냐’는 마을주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그들은 앞으로도 외로이 싸우고 개척해 나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 4. 철새마을 양지리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마을 북쪽 6km 지점에는 휴전선과 제2땅굴이 위치하고, 마을 뒤편에는 내수면적 3km<sup>2</sup>(338.85ha) 규모의 철원군에서 가장 큰 저수지, 토교저수지가 있다. 일제강점기, 금강산 가던 철길 정식역이 위치할 정도로 부촌이었던 양지리는 철원군에서 가장 비옥한 토질을 자랑한다. 6·25전쟁 후 오랜 기간 일일영농출입을 하다가 다른 지역보다는 늦은 1979년, 29m<sup>2</sup>(9평) 단독주택에 두 가구씩 모두 100호가 입주했다.

그러나 다른 민북마을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감소와 노령화





양지리 철새마을

가 심해지고, 현재는 75가구가 살고 있다. 초창기 보급된 주택은 너무 비좁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반씩 나눠 쓰던 것을 대부분 한 채로 개조하였다. 한때 학생 수가 100여 명이 넘던 양지초등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폐교되었고, 지금은 철새탐조 체험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양지리의 별칭은 '철새마을'이다. 철원평야의 젓줄 역할을 하는 토교저수지는 매년 다양한 종류의 겨울 철새들이 찾아 들어 철새탐조 관광객들로 붐빈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쇠기러기 30만 마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곳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1,000여 마리와 독수리 300여 마리가 월동한다.

이른 아침 쇠기러기 수십만 마리가 먹이를 찾아 저수지에서 차올라 비상하는 모습은 장관이다. 토교저수지는 철원평야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조성되어 일명 '전천후보(全天候湫)'로 불리기도 한다. 1968~1978년 10년간에 걸쳐 만든 대규모 인공저수지로 저수량 약 1만 5,000톤이며, 양지리와 대위리·장흥리·오덕리 일대의 농경지에 관수를 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은 겨울철새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생태마을로의 변신을 시도해왔다. 그 결과, 2000년 도 친환경 우수마을 선정, 2002년 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자 선정, 2003년 환경부 생태우수마을 지정, 2004년 농림부 녹색농촌마을 선정 등 희망의 불씨를 키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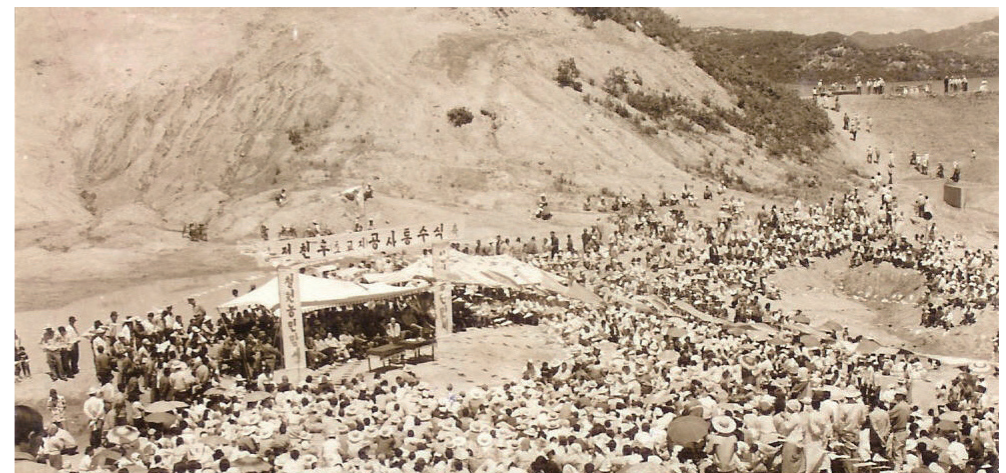
주민들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두루미펜션 등 숙박시설과 자연생태학습원까지 만들었다. 이곳에선 특히, 도시 학생들의 여름철 농촌체험과 겨울철 두루미학교 체험



비상하는 기러기



잡초가 무성한 양지초교



도교저수지 준공식

활동이 활발하다. 시류에 맞춰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시도한 생태마을로의 성공적 변신은 다른 민북마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마을 북쪽 전방지역에는 제2땅굴과 월정리역, 철원평화전망대, 철새두루미관 등이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로 유명한 월정리역에는 분단으로 끊겨버린 철도와 녹슨 철마가 덩그러니 남아 있고,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는 철원평화전망대에서는 궁예왕의 웅지가 서려있는 태봉국도성 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드넓은 평강고원도 볼 수 있다.

마을 서쪽에는 아이스크림고지 삼슬봉이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고지는 6·25전쟁 때 수많은 포탄에 산이 아이스크림같이 녹아내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5. 충절의 고장 생창리

북으로 성재산과 계룡산이 에워싸고 남으로 화강이 흐르는 생창리는 고구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김화군의 중심지였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10만 대군에 맞서 용전분투했던 홍명구공과 유림장군의 충절이 깃들어 있고,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금강산 가던 길에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화강백전을 남기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여러 마을이 병합되어 생창리로 개칭되었고, 1953년 수복되면서 옛 김화군 대신 철원군 김화읍으로 바뀌었다. 이후 남북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1970년 10월 30일, 재향군인 100세대가 입주하여 재건촌을 건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민북마을과 마찬가지로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하다. 폐허가 된 빈집과 폐교된 운장초등학교의 쓸쓸한 모습이 민북마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생창리는 구 김화권의 중심지다. 일제강점기 때 인구 1만의 황화철산지인 김화는 행정구역마저 철원군에 병합된 채 사라졌으나 정신은 살아있다. 6·25전쟁 직전까지 마을 바로 옆에 김화군청이 있었고 김화권의 중심부로 영화를 누렸다. 당시 경원선과 금강산 전철을 통해 원산의 수산물과 철원의 쌀을 교환하는 등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통로로 주목을 받았던 마을이기도 하다.

한편, 현대사의 아픈 상흔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한데, 인공치하 북한 정치보위부 건물이 있었던 동굴, 끊겨진 암정교 등은 안보교육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 6·25전쟁으로 마을을 떠난 이후 1970년대 초, 이 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은 현재 97가구 350여 명으로 넉넉하지 못한 논과 밭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다. 최근 하우스농사가 성행해 토마토와 오이 생산이 늘어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



충렬사

임진왜란 때는 왜군의 진격로였고, 병자호란 때는 청군의 남진로였으며, 6.25 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지만, 변함없이 굳건히 서있는 마을이 생창리다. 생창리 마을 주변에는 성재산성, 어수정, 전골총 등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역사적 전통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끊어진 금강산 전철의 연결로 옛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대 전환기를 맞은 민북마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기대하고 있다. 생창리 토박이인 한 어르신은 “생창리 마을은 조용하기만 한 최북단 작은 마을이지만 남북교류시대가 시작되면 북녘 땅을 한달음에 내달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은 머잖아 번영했던 옛 김화군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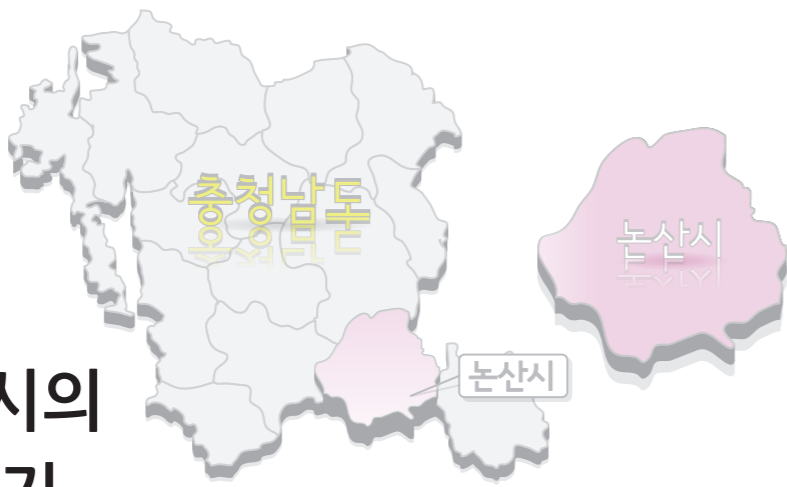
암정교 잔해



통일로 가는 길 생창리



## 충남 논산시의 놀뫼\*의 향기



김정애 논산시 기록연구사

### 1. 1차 사업 성과물에 힘입은 2차의 더 큰 목표

논산시는 2차례에 걸쳐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차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행정인턴 인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이때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라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는 잘 몰라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공주역사박물관을 견학하여 박물관 학예연구사로부터 자료의 발굴·수집방법 및 사례를 듣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수집대상도 시청 및 읍·면·동 문서고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점차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혀갔다.

그러던 중 김오중 선생의 4H 기록물·정부 훈포장 수상기록물·강경근대건축물 같은 구기록물, 1970년대 새마을사업 같은 각종 사업기록물, 1987년 수해 같은 사건사고 기록물 등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값진 기록물들을 발굴, 수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1월 논산시가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그해 7월에는 김오중 선생이 국가기록원의 '국민생활정책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풍부한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값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2차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2차 사업 때는 새로운 기록물을 대거 발굴, 수집하는 1차 사업 목표에 덧붙여, 1차 때 수집하지 못했던 분야 혹은 부족하게 수집된 분야를 촘촘히 메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놀뫼 : '누런 산'이라는 뜻으로, 충남 논산의 순우리말 옛 이름이다.

### 2. 1차 인력에 새로운 인력 더해 더 막강해진 팀원들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집원이었다. 발로 뛰며, 지역사회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그들의 열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인력을 6명 배정받았는데, 그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자 부담감을 느껴하며 사업장 변경을 원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자들의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상 근무시간이 짧아 직접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사무실에서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2차에서는 1차 사업에 참여했던 퇴직공무원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과 새로운 인력까지 총 6명의 내고장역사찾기팀이 꾸러지게 되었다.

팀은 수집팀과 정리팀으로 나누어, 수집팀은 팀장을 포함한 4명이 1차 사업 때 발굴, 수집하였던 분야(학교·지역사회·종교·새마을운동·4H기록물·문화/예술 등)에서 미흡하게 수집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굴, 수집하였고, 정리팀 2명은 작년에 입력하지 못했던 기록물철과 기록물건을 구별하여 재정리하고, 그날그날 수집팀이 새롭게 발굴, 수집해온 기록물을 정리하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였다.

### 3. 양질의 기록물과 다양한 보관물 대거 발굴

수집팀의 열성적인 발굴, 수집작업과 정리팀의 꼼꼼한 정리작업 덕분에 1차 사업결과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수집되지 않았던 분야들의 기록물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학교기록물의 경우, 1차 사업 추진 때 수집처를 학교로 국한시켜 학교 측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만 발굴한 점이 아쉬워, 2차 사업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출신학교에 관한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집처를 종래 학교에서 졸업생까지 넓혔더니,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졸업생들의 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 또 1차 사업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두레·미술전시회·음악제·장인·기능인 등 각종 축제·놀이·예술행사와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된 사업 속에서 팀원들 역시 기록물 수집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되면서 처음 목표 때 설정하였던 학교·새마을운동·종교·문화/예술 등의 커다란 주제 외에도 각자 일련의 주제를 가지고 발굴, 수집에 나서는 모습이였다. 또 민간에서 수집한 예전과 현재 사진,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지도 등을 논산시 어제와 오늘(도시계획 변화과정)로 분류하고, 시대별 이력서양식 변천 등의 분류도 만들었다.





병촌1리 마을회관

새마을 관련 교육 참석명찰과 리본

우리시에서 찾아낸 의미 있는 기록물 중에는 4H기록물과 새마을기록물이 있는데, 이는 김오중 선생이 수년간에 걸쳐 수집한 양질의 기록물로, 농업기술센터 내 4H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특히, 4H기록물은 각종 행사사진·신문보도자료·상장·협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새마을기·당시 사용했던 모자 등 기록물의 내용적·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한편, 논산시 성동면 병촌1리에는 마을회관 일부를 마을역사관으로 단장하여 우수새마을 특별지원금을 받았던 기록물, 승자마을 지정서 등 마을과 관련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전시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기록물과 관련하여 연무읍의 황종철 초대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장을 통해 1970~1980년대 활동 당시 기념사진·감사패·각종 교육참석명찰·리본 등의 기록물을 대거 발굴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로 참여했다 중도 포기했지만, 나중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1950년대 성경학교졸업장·피보험자증서·저축예금통장 등 오래된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준 이들도 있었다.

#### 4. 다음 사업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아쉬운 이야기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가장 큰 아쉬움은 민간기록물의 발굴이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소재처·소유자 등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발굴 차원에서 그쳤다. 또 기증을 한 경우에도, 사업 마무리 단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기록물 소유자와 기증자를 재차 방문하여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했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 및 저작권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업 참여자의 기록물에 대한 개념 부재를 들 수 있다. 사업 참여인력 대부분이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와 행정인턴 참여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다들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였다. 그래서 사업 초기, 수집해야 할 기록물에 대해 명확한 개

념을 잡지 못하고 막연히 오래된 서류·고서·박물관에 있는 유물 등을 수집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였다.

이에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기록물 일반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데, 이 교육의 목적은 참여인력 스스로 발굴, 수집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 양질의 풍부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진행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도 있었다. 사업 참여인력들은 이 교육 외에도 공주역사박물관 방문을 통하여 학예연구사에게 유물 발굴·수집방법과 실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듣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 5. 사업의 의의 및 앞으로의 방향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은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지역기록물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기록연구사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기록물 외에도 민간에 분포되어 있던 의미 있는 지역기록물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팀원들뿐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지역주민들 모두가 지역사회와 지역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민간기록물을 발굴, 수집하여야 하며,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양질의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기록물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사이에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부용식 제주특별자치도 학예연구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탐라기록보물 찾기

### 1. 기록의 필요성, 관리보존의 중요성

현대의 인간은 다양한 기록을 접하고 또 스스로 많은 기록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는 우리 인류의 보편타당한 세계적 질서를 알려주기도 하고,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와 미래 가치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선결 조건이 있다. 수많은 기록을 어떻게 가공처리하고 정리하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우리 혹은 내가 생산한 기록이 정보적 가치를 갖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역별·개인별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해줄 것인가가 바로 그 기록물의 가치며 생명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9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갖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선진적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며 유용하게 쓸 것인가?’라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유산이 아무리 훌륭하게 생산된 기록이며, 모든 분야의 정보를 집대성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보존·관리가 허술하여 소실되어 버린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에 불과하다.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으로 민간 분야의 기록물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7년부터 기초적인 조사 사업은 이루어졌지만, 조직과 예산을 갖고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간 다른 기관과 단체에서 학술적 차원의 기초조사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으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산재해 있는 각종 민간기록물의 의의와 중요성, 수집의 주체 및 대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민간기록물의 조사유형, 분포현황 등 수집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민간기록물의 의의 및 보존가치

#### (1) 공공기록물을 보완하는 민간기록물

민간기록물은 고문서·사문서·편지·일기·메모·가계부·사진·파일·테이프·형상기록 등 그 형식이나 내용,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유 중인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민간기록물의 유형을 형식이나 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록물의 평가와 수집의 관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위상·기능·사회적 임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민간인으로서 개인의 위상과 기능은 종사하는 직업 및 사회적 활동, 영향력, 직업이나 다른 사회활동 내에서의 개인의 위상 등이 기록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민간단체, 기업이 생산하고 보유한 기록물 또한 마찬가지다.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기록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을 보완한다. 공공기록물이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사실을 민간기록물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록물은 연구자료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로서도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학이나 예술작품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 (2)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해야 하는 보존가치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지닌 내용, 사실성, 원문성, 객관성, 희귀성의 요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형태 및 이용상의 특성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가치는 그것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구의 성격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보존기구에서는 전혀 수집할 의사가 없는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정 기록보존기구에서는 중요한 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업무적 동기에서 정보를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며 여러 경로를 거쳐 유지되고 갖가지 장소에서 보존된다.

기록물은 내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산 동기와 보존 목적에 맞게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가 파생될 수 있어 그 보존적 가치는 무한하다. 특히나 민간 분야의 기록물은 어느 한 개인 혹은 사회집단의 주관적 성격을 상징할 수 있기에 중요한 보존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다양한 민간기록물 수집기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우선시되는 것은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점검과 기록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박물관 운영부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감귤박물관 및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의 박물관계(係), 4·3사업소, 탐라기록관리소,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등의 기념관계,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등의 도서관계, 제주문화원 등의 문화원계와 더불어 사설 박물관과 개인 향토사학자 등이 있다.

### 4. 과거부터 현대까지 수집대상의 범위 선정

기록물의 수집기관이 기록물을 수집할 때는 먼저 수집의 범위와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수집의 범위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곧 수집대상을 선정하는 것인데, 수집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규정이 있어야 수집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탐라기록관리소가 추진하고 있는 수집대상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간기록물의 수집대상)

- 공공 분야 : 공공기관의 생산기록물(문서, 대장, 카드, 도면, 행정박물 등)
- 민간 분야 : 문집류, 개인소장 공공기록물, 개인기록물, 각종 사설단체 기록물, 고문서 등



민간기록물 수집 홍보물

- 사진에서 보듯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고장 역사찾기 민간기록물 세부 수집대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역사 연혁에 관한 기록물로, 지명 및 자자체 경계 유래, 행정조직 연혁, 도시계획 기록물
  - 주요 인사, 보통사람들의 인물 소장 기록물로, 초대부터 최근까지 역대 단체장의 개인사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앨범·훈포장·서신·일기·업무수첩 및 행사기록물·주요 사업에 참여한 퇴직공무원·민간참여자 등의 개인사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공보관실 사진담당 퇴직 공무원 소장 기록물, 지방에서 존경받는 유명인사 등의 육필원고 등 개인기록물, 근대 이후 제주 지방관(도사, 도지사) 관련 기록물, 집안 문중 기록, 4·3, 6·25 등 주요사건, 행사의 기록



- 도내 역대선거, 각종 축제에 관한 기록물로, 선거 포스터·홍보물 및 시청각·마을축제에서 생산된 사진·동영상·박물·일반기록물
- 역사적, 문화적 지역 전통행사와 관련한 기록물로, 제주 영등굿·마을별 분향당·구비 녹취 기록물·제주지역의 관혼상제에 관한 기록물·제주 신앙과 관련한 마을 분향당 자료
- 근대화 산업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인 4H·새마을운동·마을이장 기록, 농민일기·지역의 공장운영 기록물, 마을 자생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활동기록, 농협·의료기관의 주민봉사 기록
- 전근대 기록물인 토지매매문서·절목·등장·호적중초 등의 기록물, 제주 삼읍(제주목·대정현·정의현) 지방관 관련한 기록물, 교육자료 등이다.

여기서 고문서는 실제로 조선 후기의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기록물이 보존되거나 전승되는 과정은 대개 기록물을 작성한 주체(개인이나 집단·조직·기구)에 의해 보존된 것과 기록물이 주로 활용되던 관련 기구와 이들 기록물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개인)에 의해 보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종류는 지방에 소재한 향교, 서원, 사우, 재실, 루정, 동각, 정려, 사찰, 종가나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고문서는 도내 각종 수집기관들 중 특히 박물관계의 수집기관들이 주로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근현대 기록물이다. 근현대 기록물은 시기상 최근 것이라 어떤 기록물 수집기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근현대 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카드·도면·대장 및 특수기록물 등이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 생산된 문집류, 개인소장 공공기록물, 개인기록물 및 각종 사설단체의 기록물 등이 있다.

탐라기록관리소가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민간보유 기록물과 민간생산 각종 문집류, 개인기록물, 각종 사설단체 기록물 등이다.

## 5. 내고장 역사찾기 민간기록물 수집현황

### (1) 1970~1980년대의 다양한 기록물로 가득한 2009년 수집현황

근현대 기록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09년의 수집현황을 보면, 개인 혹은 단체가 생산한 기록물이 많은데, 세부적으로는 새마을운동·개인 경조사·가족 간의 서간문·일기·기업경영 등의 경제기록, 재산분재기나 장례택일문 등의 가족 관련 개인기록, 제주

교육과 일본 감귤수출 등의 근현대 발전기록, 각종 표창장과 고문서 등 1970~1980년대의 기록물 등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중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록물의 존재적 가치는 가치 그 시대의 생생한 삶의 흔적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2009년 수집현황〉

구분		개인기록	마을단체기록	고문서	개인생활자료	계
제주시	건입	94	-	5	57	156
	삼도	172	16	-	47	235
	애월	71	180	17	16	284
	계	337	196	22	120	675
서귀포시	대정	24	2	36	45	107
	중문	68	25	10	-	103
	표선	46	15	6	7	74
	계	138	42	52	52	284
총계		475	238	74	172	959

### 〈주요 수집목록〉

기록물 종류	내용
개인기록	-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국어서 교본(일제문부성 발행, 1923) - 무상(배재고보 정상장학회 기금 마련 노산 이은상 선생 수필, 1936) - 장례택일문, 제주농업학교 및 실수학교 사진첩(1940년대) - 가족편지문(1980년대)
고문서	- 호구단자·도허문(융희2년, 1908) - 호패(정의좌면 하천리 제8통1호, 경자년), 정3품 통정대부 칙령(광무6년) - 토지매매문서(광서8년, 임오9월)
마을단체기록	- 새마을지도일지·우수마을 성공사례문(1970년대) - 작목반 일지(고구마 식재·콩파종 등, 1982)
개인소장 공공기록	- 일제강점기 학교 상장, 공공기관 임명장 및 위촉장·각종 증명서 및 통지서(1960년대) - 전두환 대통령 아세안5개국 방문기념 우표 5매(1981) - 정부수립 30주년 기념 우편엽서(1981) - 박정희 작사·작곡 나의 조국 악보 게재



## (2) 1960~1970년대 행정기록물이 주를 이룬 2010년 수집현황

2010년 수집기록물을 살펴보면, 1960~1970년대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문서(첩지·교지) 및 학교와 관련된 기록물도 보인다. 이것은 수집대상이 전직 공무원이었거나, 수집요원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학창시절 추억물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2010년 수집현황〉

구분	문서류	고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간행물류	계
제주시 (위탁포함)	231 (8)	20 (13)	832	227	76	1,386

### 〈주요 수집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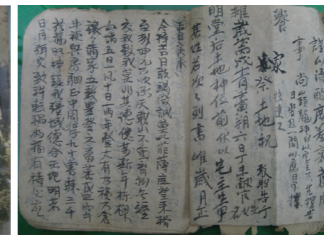
기록물명	내용
	- 도내 주요기관장 및 청사 사진(1966)
	- 북국민학교 통지표(1949)
	- 제주 출신 전국 주요 인사 사진(1968)
	- 김경봉 예민원 주사 시판 임관(광무9년)
	- 각종 축문(입택·졸곡·지제 등)
	- 역사의 증언(북괴 노동당과 그 내막, 간행물, 1969)
	- 신성여학교 1회 졸업사진(1914)
	- 국민학교 음악책(1958)
	- 도내 초·중·고 학교 배지(1970년대)
	- 제3공화국 경축 사진첩(제주도편, 1964)
	- 제주 목사가 훈장에게 보낸 첩지(1827)
	- 사라호 태풍 피해(서귀농고, 1959)
	- 김도준 도의원 육모장 실태 조사(1959)
	- 박정희 관련 사진(1960년대)
	- 교지 및 칩명(광무6년)

## 6. 맺음말

모든 기록물은 수명을 갖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기록물의 우선 수집대상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나 민간기록물은 보존환경이 열악하여 기록물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보존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 관련 법령의 재정비 시에는 민간기록 관리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록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기록관리 대상이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일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신성여학교 졸업앨범(1914)



졸곡, 지제 등의 축문서식



도내 중·고등학교 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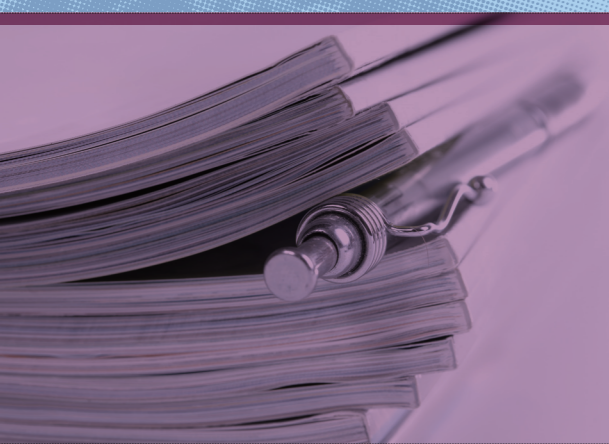
# 제 2 장

## 우수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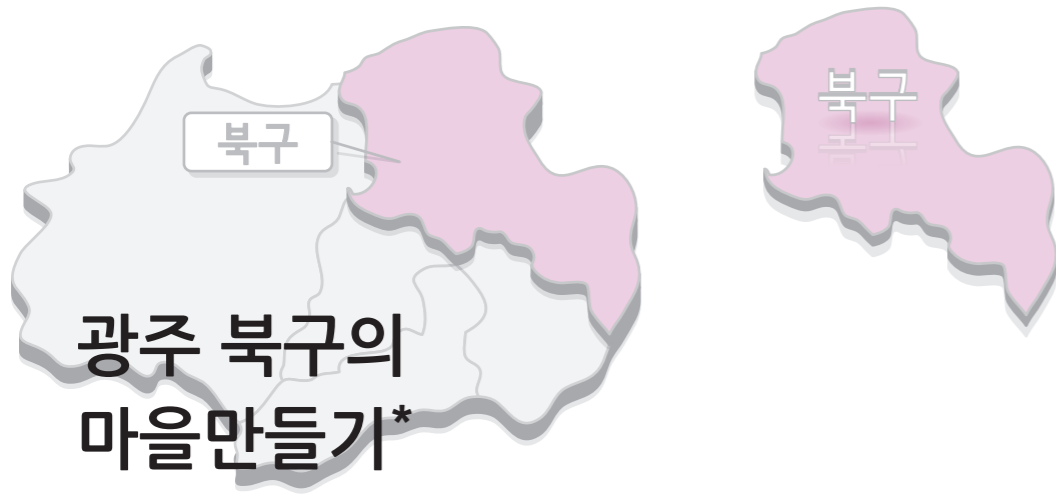
광주 북 구

경기 김 포 시

경남 고 성 군







## 광주 북구의 마을만들기\*

### 1. 마을만들기 의의

#### (1)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찌즈꾸리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는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관 주도의 획일적·하향식 지역사회 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장소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거주환경을 편안하고 활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포함돼 있다.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마찌즈꾸리)’라는 말은 1962년 일본의 나고야시 에이토 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반화된 용어가 되었으며, 하나의 붐(boom)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 (2) 마을의 다른 이름은 커뮤니티

마을만들기의 개념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 **지역활성화 요소** : 대외적 브랜드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의 부흥, 고객유치 장치로서의 매력적인 지역사회 공간과 이벤트 창조, 지역 이미지 만들기 활동
- **지방분권 요소** : 국가의 상의하달적·획일적 행정체계로부터의 독립, 권한의 이양, 재정의 자립, 독자적 조례의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활동의 확대

\* 출처 |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백서

- **주민참여 요소** :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에 대한 권리의식과 자각을 확립하고, 행정 정보의 공개와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는 활동
- **지역공동체 회복** : 주민의 가치관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의 행동과 생활관습을 개선하며, 도시 사회의 삭막한 인간소외를 극복하여 우애와 협동의 도시공동체를 회복하고, 대량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적 각성을 촉구하여 친환경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

**마을만들기란** 대상으로서의 ‘마을’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대상으로서의 ‘마을’은 물리적인 범주라기보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은 커뮤니티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 2. 마을만들기 배경

#### (1) 마을만들기는 지금도 진행 중

1995년 민선자치시대에는 지역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를 준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손잡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 시작된 민선2기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주민자치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곧 운영경험 부족, 운영 프로그램의 한계, 주민참여의 형식성,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마을만들기는 주민, 행정, 시민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생활자치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꾸어 나감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을 통해 공동체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광주 북구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주민 취미교실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숙원사업의 발굴,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 마을만들기를 확대 발전시켜가는 중이다.



## (2) 마을만들기가 필요한 이유

마을만들기의 시작은 대부분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 의지, 생활환경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 생활환경에서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만들기운동은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도시빈민지역에서의 주민운동,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기초한 지역운동의 전통·자립적 경제를 위한 생활협동운동, 환경·생태 공동체운동 등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다. 또 민선자치 이후에는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과 주민참여의 확대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거권 확보와 정비운동 활성화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마을만들기 운동이 필요한 이유〉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분권화·자율화·참여의 확대
- 주민운동의 변화와 이에 관심 있는 전문가집단의 관심 증대
-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 행정기능의 변화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식 변화
-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 3. 마을만들기 유형

마을만들기의 활동범위는 비단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가꾸고 개선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람·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 또한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가 여러 형태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내용과 유형을 특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추진 주체·운동 대상·운동 지역·운동 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1) 주체에 의한 유형

- 주민 주도형 :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경우.
- 시민단체 주도형 :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주민들과 함께 생활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행정에 요청하는 것으로, 주민과 시민단체가 생활공간 안에서 함께 자체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 행정기관 주도형 : 행정 측에서 먼저 주민참여형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민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는 경우.
- 전문가 주도형 : 전문가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 (2) 대상에 의한 유형

- 마을의 하드웨어 만들기 : 마을의 공간이나 시설물을 만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정비와 관련되거나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역사적 자원의 보존과 개발, 쇠퇴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이 있다.
- 마을의 소프트웨어 만들기 : 지역발전을 위한 주체적 주민조직을 구성하거나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을의 인물·역사 알기, 마을 오리엔티어링, 지역 특산물 개발, 다양한 이벤트의 개최 등이 있다.
- 마을의 사람 만들기 :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모두 협동해야 마을이 발전한다는 인식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자각하고 마을을 사랑하는 향토애를 키울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각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지역에 의한 유형

- 아파트 단지에서의 마을만들기 : 흔히 아파트 공동체운동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단지의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주민 공용공간 만들기(도서실, 체육시설, 회의실, 기타 문화 공간), 외부환경 가꾸기(꽃길 조성, 화단 정비, 베란다 화분 내놓기, 벽면녹화, 생울타리 조성), 공동체운동(단지 내 축제, 재활용 선별, 환경사업, 애경사시 방문하기), 공동육아, 어린이 공간 만들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일반 주택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 집 앞 골목이나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골목길을 되돌려 주기 위한 차 없는 골목 만들기(서울 서대문구 전농동), 골목길의 차량통행을 일정시간 동안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하기, 골목 가꾸기(내 집 앞 골목 내가 쓸기, 꽃길 조성, 화분 내놓기, 벽면녹화, 벽화그리기, 담장 허물기, 주차질서 지키기), 공원 만들기(서울 사당동 양지공원),



마을 환경조사(마을 지도 그리기, 대기오염 조사, 녹지실태 조사, 가로환경 조사, 통학로 교통여건 조사), 공동육아 및 어린이집 조성, 어려운 이웃돕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상가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 쇠퇴하거나 침체되어 가는 지역 상권을 상인들의 힘으로 되살리는 자구 노력의 경우로,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차 없는 거리 조성, 문화공간 조성, 가로환경 정비, 상점가 축제(명동축제, 압구정로데오거리 축제), 간판 또는 쇼윈도 정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상거래질서 지키기 등이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환경을 조사(인사동 역사문화탐방, 어린이 눈으로 인사동 살펴보기 행사)하거나 마을 계획안을 수립(경동 약령시장 정비계획,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 재개발 무허가 및 노후 건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나 비교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환경이 철거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세입자들이 집단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것이 있으며, 재개발 지역의 사례로는 철거민 이주단지 조성(성동구 금호동 송학마을, 서대문구 무악마을, 경기도 시흥의 복음자리 마을·한독마을·목화마을) 등이 있다.

- 기타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기타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에는 공공시설물 가꾸기, 벽화 그리기, 구청 담장 허물기, 구청 광장 꽃 전시회, 공공시설 계획과정의 참여(도봉구청사 설계안 심사과정에서 450여 명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안 선정),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한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등이 있다.

#### (4) 내용에 의한 유형

- 정보화마을 만들기 : 광섬유에 의한 정보고속망의 정비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주거단지에 사이버교육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 안전한마을 만들기 :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청소년, 부녀자,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환경설계에 의한 주거단지의 방법성을 향상시키고 건축 및 근린 수준과 지구계획에서의 방법설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경관마을 만들기 : 주민들의 참여 아래 마을의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도록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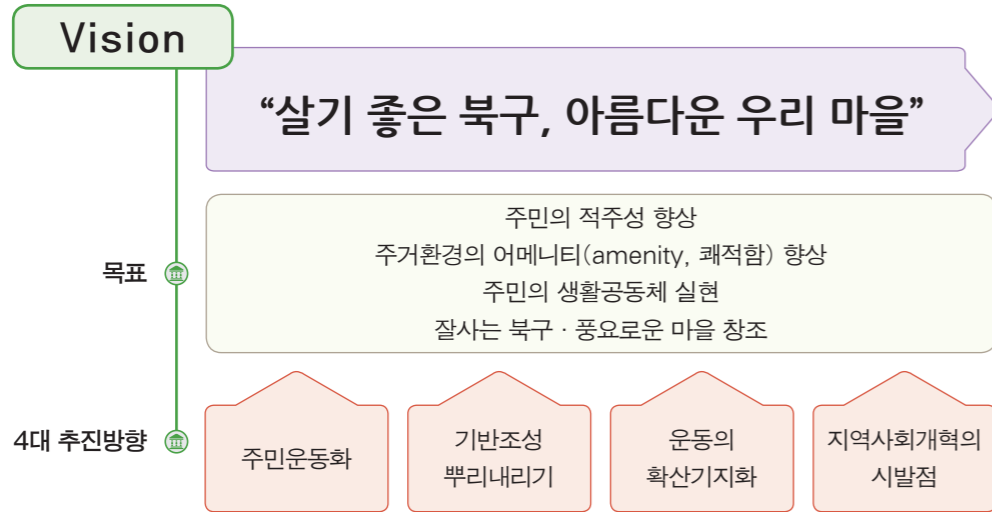
으로, 건물형태 규제·저층부의 갤러리 및 쇼윈도 용도 유도·벽면선 및 색채 규제·스카이라인·랜드마크·외부간판 규제·아이스톱·상징가로·야간조명 등 경관정비사업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역사를살린마을 만들기 :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로, 보존 지구의 지정이나 재개발을 지원하고, 보행자도로 등을 중심으로 문화거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적 경관 조성을 위해 지구를 지정(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규제)하고, 역사 문화적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통의 공예품이나 공작물을 복원, 계승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
- 방재마을 만들기 : 대표적인 예로 도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해 인식 제고, 방재 계획 수립 및 방재센터 설치, 피난지 및 피난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자재의 지역 비축시설 준비 등의 사례가 있다.
- 건강복지마을 만들기 : 마을의 주요 시설 및 공간과 기능에 연령이나 계층에 따라 복지적 배려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고령자·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건축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생태환경마을 만들기 : 마을 생태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생태계 재생을 위한 생물생식공간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마을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옥상녹화·벽면녹화·자연담 조성·도로변녹화·방음벽녹화·급경사지녹화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순환형마을 만들기 : 마을에 쓰레기 및 자원 재생을 위한 수집센터를 설치하고, 중수도 및 지역 냉난방 시설을 도입하여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만들고, 재생 가능한 소재의 활용도를 높이며, 다양한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시민마을 만들기 : 주민과 행정, 지역 기업 간의 파트너십과 시민 중심의 지역사회 치력을 제고하고, 민간비영리조직(NPO)을 적극 활용하여 테마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시상제도 확립(일본 동경의 경우 청소공장 굴뚝에 관한 컴페티션에 의한 색채디자인 실시), 마을만들기 법인 창설 유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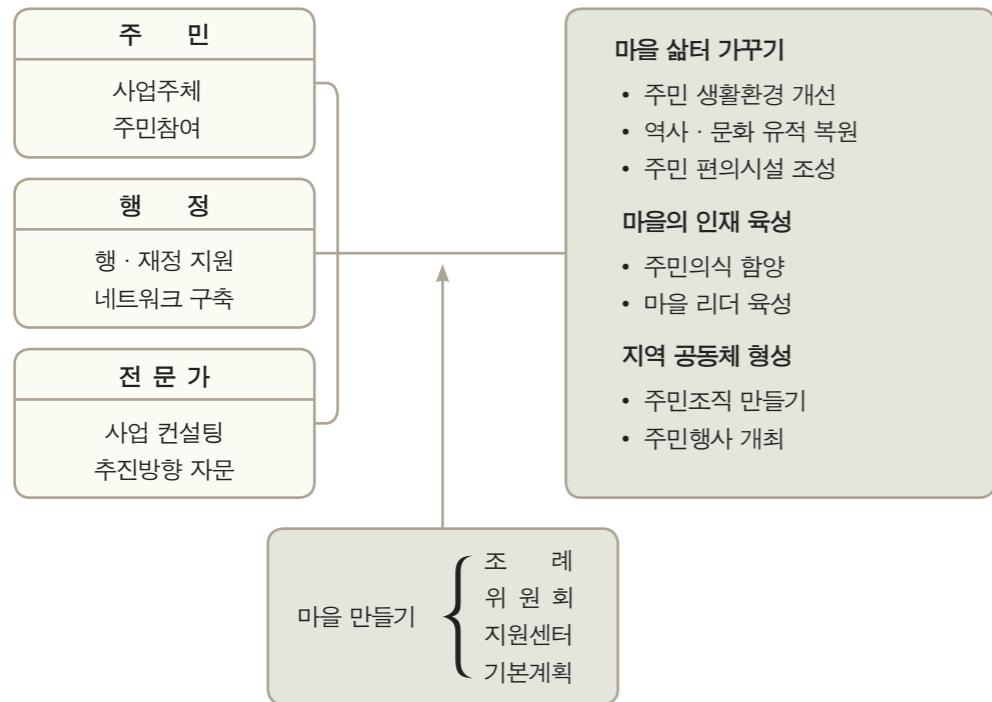


### 4. 마을만들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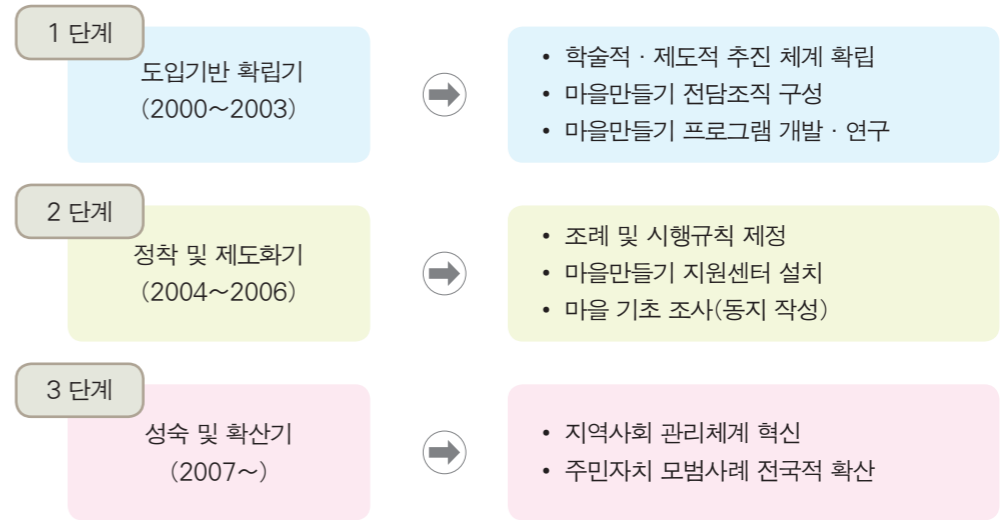
#### (1)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 (2)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전략



#### (3) 성숙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과정



#### · 제1단계(2000~2003) : 도입기반 확립기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까지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논리적 · 제도적 · 시범적 운동 기반을 확립하고, 마을만들기의 이념과 학술적 · 이론적 체계의 확립, 마을만들기 연구회 구성 및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 · 소개, 주민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 · 주민 조직의 지원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 · 제2단계(2004~2006) : 정착 및 제도화기

마을만들기 도입기반 확립기 이후, 광주 북구 각 마을에 완전히 정착한 마을만들기를 범 주민운동으로 추진한 시기다. 이 단계에서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 마을만들기 장인지역사회의 문화 · 역사 · 자원 등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마을만들기 총람 발간, 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과 운영, 행정조직의 개편,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만들기 센터화, 전문인력 양성, 각 마을 단위의 주거환경 및 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 · 제3단계(2007~) : 성숙 및 확산기

3단계에서는 주민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참여형 마을 단위 도시계획과 지역 재생 · 활성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역문화 공동체운동의 정착, 주민의 의식개혁과 지역사회 관리체계의 혁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구에서 광주 전체로 확산하여 광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며, 국내외 마을만들기 선진지역과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나아가 마을만들기의 노하우와 경험, 정보를 전국에 확산 보급함으로써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북구 소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목록〉

유형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문서류	행복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미상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0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2000	석곡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1	두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1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1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두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2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2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두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3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두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4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2004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두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5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5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6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6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6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6년)	2006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유형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문서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6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7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8	두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8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8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8	오치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8	매곡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9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9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상황	2009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2009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9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 위원 마을만들기 협정교육	2009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평촌 건강 장수마을 가꾸기	2009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평촌 건강 장수마을 가꾸기	2009	석곡동 주민자치센터
"	상장-최우수상- 2005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2005	행정자치부 장관 योग교
"	2008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대회 우수	2008	행정안전부
"	제2008-18호 인증서-2008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 우수상	200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2001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총람	2002	광주광역시 북구
"	20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총람	2001	광주광역시 북구
"	마을만들기 연구회 회의자료	2004	광주광역시 북구(주민자치과)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2003	광주광역시 북구(주민자치과)
"	2004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광주광역시 북구(주민자치과)
"	2001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총람	2002	광주광역시 북구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2	광주광역시 북구
"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총람	2006	광주광역시 북구
"	2008 마을사업 평가 및 관계자 워크숍 자료	2008	광주광역시 북구
"	2008 마을만들기 위원회 정기회 자료	2008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과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1999	광주광역시 북구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공청회 자료	2004	광주광역시 북구
"	2008 마을만들기 관계자 워크숍 자료	2007	광주광역시 북구
"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광주광역시 북구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정기회 자료	2007	광주광역시 북구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워크숍 자료	2004	광주광역시 북구
"	2001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총람	2001	광주광역시 북구
"	내가 가꾸는 우리동네, 2001	2002	광주광역시 북구
"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을	미상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5	광주광역시 북구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0	중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1	중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2	중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3	중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4	중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5	중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0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1	중앙동 주민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2	중앙동 주민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3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7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0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광주 북구 소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목록〉

유형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문서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7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3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2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1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0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0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0	북구 임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1	임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2	임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3	임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임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임동 주민자치센터
"	내집앞 마을 가꾸기	2007	임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관리카드	2000	중흥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1	중흥3동 주민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2	중흥3동 주민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중흥3동 주민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중흥3동 주민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중흥3동 주민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0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1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2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3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4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2005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2007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장 개·보수사업 추진 신안동 148 외 1	2007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한지 내 소공원 조성	2006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철로 굴더리 옹벽 설치사업	2005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2004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철쭉꽃길 조성	2000	용봉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벚꽃거리 조성	2001	용봉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조성 벚꽃거리 추가 조성	2002	용봉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관계철	2004	용봉동 주민자치센터
"	2005년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관계철	2005	용봉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발지암 건강보도 설치	2000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발지암 보도 설치	2001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벚꽃어린이공원 주민센터 조성	2002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지우어린이공원 담장 정비	2003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운암2동 썬지공원 조성	2005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비엔날레 길거리 갤러리	2008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가로수 주변 미니화단 조성	2008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동운고가 밑 화단 조성	2008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추억의 비엔날레 자료전	2008	운암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버스정류장 휴게시설 설치사업	2005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4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운암산 산책로 조성사업	2003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도로변 절개지 꽃동산 조성	2002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 카드- 현수막 걸이대 설치	2001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소공원(쉼터) 조성	2001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정미의 거리 조성	2000	운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북문로 모자이크 벽화 조성	2006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백일홍 언덕 조성	2000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의 쉼터 만들기	2001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황계거리 쉼터 만들기	2002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황계거리 쉼터 그림 게시판 설치	2003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모자이크 벽화 조성	2004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모자이크 벽화 조성	2005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사업-꿈꾸는 아이들의 사랑나눔 공부방	2005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유형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문서류	2008 책 읽는 마을만들기	2008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2009 책 읽는 마을만들기	2009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책 읽는 녹색마을 프로젝트 사업	2009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	2009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그린어린이공원 가꾸기	2000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향토문화의 거리 입구 조성	2001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옛 경양역로 '찰방비'	2003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동강육교 '썬지공원' 조성사업	2004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우골 쉼터 조성사업	2005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	2009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그린어린이 공원 내 쉼터 조성사업	2008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장-백일홍 군락지 조성	2000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백일홍 군락지 연계 조성	2001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운암산 등산로 정비	2001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주민쉼터 조성	2002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삼익아파트 입구 화분 가꾸기	2003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백일홍 동산 조성	2004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백일홍 동산 조성	2005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역사가 숨쉬는 다리 조성	2007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지역안내도 제작 설치	2000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주민화합과 휴식을 위한 쉼터 조성	2001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건강지킴이보도 설치	2002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한식 파고라 설치 및 농로정미 식재	2003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동강육교 썬지공원	2004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어린이 쉼터 조성	2005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카드	2009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0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1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2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3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4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5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카드	2007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2009	두암1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9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8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0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2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0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1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2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3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4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5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5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7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7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8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책 읽는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2004	문흥2동사무소, 문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	2005년도 아름다운 마을 특화사업	2005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1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3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6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4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5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2009	삼각동 주민자치센터
박물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동서화합을 이루는 송현로	1988	중흥2동 주민자치센터
"	2009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병문이 있는 마을	2009	중흥3동 주민센터
간행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2000	광주광역시 북구



## 경기 김포시의 사람과 생활\*



### 1. 5,000년 벼농사의 시원지, 김포

김포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정립(鼎立)하고 있었을 시절, 그야말로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최초로 '김포'라는 지명으로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것이 고구려 장수왕63년(475)이었고, 통일신라 경덕왕16년(757)에 김포현(金浦縣: 김포, 검단, 고촌지역)으로 개칭되면서 김포(金浦)라는 명칭을 쓰게 됐다.

이 지명은 '존장 또는 부족장이 다스리는 바닷가 고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옛날 제방이 없던 시절, 강물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검은 개(바다) 고을'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 2. 김포의 근현대 역사자료 조사

내고장 역사찾기를 통해 김포에서 찾은 기록물은 총 1,271점이다. 특히,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는데, 그 수량이 970점에 이른다. 물론 문서류와 시청각류도 많이 발굴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두 김포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기초정보가 될 것이다.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영농일지(1950, 1960)·진사시험 제출 답안지(1749)·신식청년 척독 및 상환기일 예고장(생산연도 미상)·농기구 및 맷돌·마패 등이 있으며, 농기구와 생

\* 출처 | 「김포 근현대 역사자료 조사 및 수집사업 보고서」, 「개별 조사 보고서」

활도구의 경우 농기구 52종, 생활도구 127종 등이 수집됐다.

- 사업주관: 김포시, 김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 조사기간: 2009년 6~11월
- 참여인원: 희망근로인력 20여 명
- 조사대상: 문서류 및 박물관(농기구 및 생활도구에 중점)
- 조사분량: 총1,271점

유형	문서	고문서	시청각	박물관	간행물	도면·지도
수량	157	90	48	970	2	4

#### ○ 농기구와 생활도구

농기구 (52종)	가래, 가마니, 가마니틀, 가축 주사기, 갈취, 거적, 곡괭이, 곰방메, 광주리, 그네, 길마, 공계, 나래, 낫, 농약분무기, 달구지, 도리깨, 망태기, 멍석, 멍에, 맷방석, 못줄, 밀대, 바구니, 바람개비, 바람개비 날, 밭, 밭채, 새끼틀(제승기), 섬틀, 소굴레, 소코뚜레집게, 씨래, 씨아, 옹두레, 워낭, 인삼씨송곳, 작두, 작두날, 쟁기, 쟁깃날, 절구, 절국공이, 제기, 접시, 제초기, 지게, 지게작대기, 채반, 곁뜯, 탈곡기, 함지박, 호미 등
생활도구 (127종)	가마솥, 솥뚜껑, 가위, 가죽칼갈이, 석유폰로, 국자, 기와, 낫수저, 낫짓가락, 낫주걱, 누룩고리, 다듬이돌, 다듬이방망이, 다리미(손), 다식판, 단지, 대접, 툯/항아리, 동고리, 뒷박(되), 두레박, 뒤주, 떡메, 거름통(똥통), 따리, 말, 맷돌, 머리빗, 문짝, 물통, 바둑판, 바디, 병풍, 북, 비녀, 사물함, 사발, 상어, 술, 술춘, 시계(괘종), 시루, 시루방석, 얼레, 이발기(바리깡), 책꽂이, 체, 찻다리, 축음기, 텔레비전, 풀무, 전통춤복, 원삼, 족두리, 고쟁이, 가채, 깎대(각대), 관복(단령), 목화(신발), 신부웃함, 청사초롱, 호롱(등잔), 호족반/제사상, 호패, 흥두개 등

### 3.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김포 마을이야기

#### (1) 전류2리 민영만 어르신의 '그땐 그랬지'

- 전류2리는 원래 '전류리'였으며, 행정구역이 1, 2리로 나뉘기 전에는 마을행사와 풍습을 공유했었다. 전류2리에는 현재 가옥이 30호 정도 남아 있으며 마을회관은 없다. 주요 성씨로는 여흥 민 씨 우수공파(8호)와 지호공파(8호), 서현동에 강씨마을 4호가 대표적이다.



전류2리 주민 민영만 어르신

○ 일제강점기시절에는 다나까라는 일본인이 인력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아 논으로 개간하였는데, 당시 지계로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 보수로 60전(좁쌀 2포 값-1포 25kg)을 주었다. 일본 주인은 한국인 관리자를 두어 3대 7(지주)로 벼이삭을 정확히 나누었고, 소작농은 벼 한 단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한국인 관리자에게

장어와 술대접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옛 땅을 찾겠다고 일본에서 다나까의 아들이 다녀갔다.

- 삼포농사는 1946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개성사람에게 인삼 씨를 시가의 2배 주고 사서 도짓밭을 쌀 2가마 주기로 하고 시작하였다. 이후 2자리 2,500여㎡에서 재배를 했으며, 다른 주민 5명도 800여㎡씩 삼포농사를 지었다. 당시에는 6년근이 되기 전 4~5년째에 자주 도둑이 발생하였다.
- 전류리 포구에서는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아 팔기도 했는데, 1955년경에도 이 포구에서 조기를 팔았다.
- 창고에는 지금도 옛날 물건들이 남아 있다. 바람으로 벼를 분리하는 풍생기, 오래된 재봉틀 등이 그것이다. 또 10살 때부터 써오던 일기와 가계부 등도 있다.

## (2) 마곡2리에 사는 어르신들의 '그땐 그랬지'

- 마곡2리는 현재 67호, 12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행사로는 해마다 노인회 관광이 있고, 12월에는 대동회 모임을 한다. 이곳엔 300년을 산 회화나무, 330년을 산 느티나무 2그루, 100년을 넘게 산 팽이나마가 있다. (민경제)
- 1968년 전기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전기값을 아끼려고 두 방 사이 벽에 구멍을 내 전등 1개로 2개의 방을 밝히기도 했다. 또 1970년대에는 쌀 12가마 값으로 전화를 처음 설치하였는데, 교환전화 시절이라 이장 집에 설치된 전화기 1대를 마을 전체가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의무계'라 하여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집집마다 쌀 1되와 막걸리값 돈 30~100원을 내고 3일장을 치르기도 하였다. (심복섭)
- 마곡2리는 마을을 안고 있는 형태라서 이 동네를 '안산(案山)'이라고 불렀으며, 수리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심을 수가 없어 피와 메밀을 심기도 하였다. 이곳에 6.25 때는 터키군 소대가 주둔하기도 하였다. (이기창)

○ 330년이나 된 이 느티나무에 배가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었다. 아마도 우물을 팔 때 밭에 갯벌 흙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이곳까지 배가 드나들었을 것 같다. 지금도 100년이 넘은 집에 아직 살고 있고, 150년이 넘은 고가구와 조상들이 쓰던 필서, 고서 등이 많이 있다. (민경태)



오래된 재봉틀



마곡2리 주민들



330년 된 느티나무

## 4. 고문헌에서 찾은 조상들의 흔적과 그리움

### (1) 책 읽는 아버지를 추억하는 민현기 어르신

민병락, 호는 소천(小泉). 그는 민현기(36년생) 어르신의 부친으로 2000년 93세로 작고하였다. 전류리 토박이였고 노인회장을 지낸 인물로, 인품이 솔직하고 다정하여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릴 적 서당을 다녀서 한학에 능하였으며, 하성면 주민들 수백 명에게



작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친구들과 시를 읊기도 하고 글쓰기도 즐겨하였다. 노인회장을 맡았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하성농우회 정관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마을 부적을 작성하거나 굿하는 날과 기타 택일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실록」이라는 책도 직접 작성하여 널리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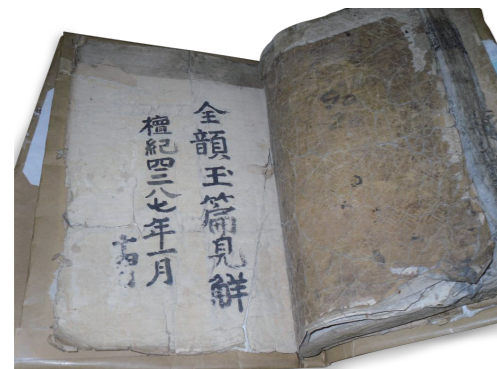
민헌기 어르신은 “책이 녹아내릴 때까지 공부를 하셨다”는 말로 아버지를 추억한다. 그는 부친이 즐겨 보던 「옥편」과 고서인 「천기대요(天機大要: 역학·상장·혼인·양택·제사에 관한 책)」, 「간독정요(簡牘精要: 편지 쓰는 예문 등을 기록한 고서)」, 「천자문(千字文)」, 「비정집(肥精集): 국사봉하헌(國思峯下軒)」, 「후집대전(後集大全)」 등 여러 종류의 고서와 수첩, 금전출납부를 간직하고 있으며, 각종 편지, 12덕목에 대한 친필 액자, 공로상장 등도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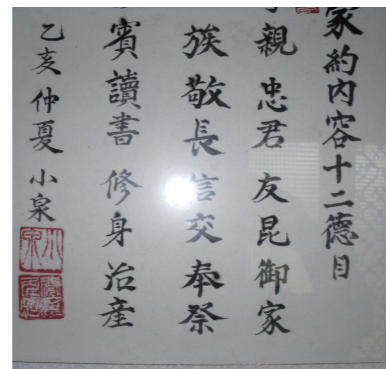
부친을 추억하는 민헌기 어르신



간독정요



옥편



12덕목 친필 액자

## (2) 김포 토박이 집안에서 살아온 권정택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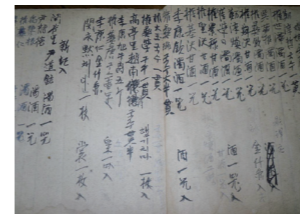


김포 토박이 권정택 어르신

권정택 어르신은 조상(안동 권씨 추밀공파, 남강공파) 대대로 이곳 김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지금의 집에서는 조부 때부터 살고 있어 옛날 부친(권의훈)이 남긴 옛 문헌이 많이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여러 권의 서책들을 보여주었는데, 그중 「부조기」와 「추수기」 2권의 장부가 눈에 띈다. 「부조기」(임오년)는 일종의 축의금 목록으로 조모 환갑잔치에 들어온 국수·감주·옷·양말 등의 부주 내용들이 적혀 있다. 「추수기」(갑오을미도)는 그 해에 추수한 곡식 등의 목록이었다. 둘 다 부친이 기록해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오랫동안 부친이 사용해왔던 「가정보감」(지금의 백과사전), 「안동 권씨 가계」(족보), 「필서」(택일) 등이 있었다.



부조기



추수기



가정보감

## 5. 잊혀져가는 농기구와 각종 생활도구들

### (1)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데 사용하는 '용두레'



용두레

용두레는 깊은 곳에 고인 물을 높은 곳에 있는 천수답으로 퍼 올리는 재래식 양수도구로, 지방에 따라서 통두레, 파래, 품개, 풍개로 부른다. 만드는 방법은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게 파낸 뒤, 중앙부 양쪽으로 가는 구멍을 뚫어, 막대를 가로질러 끼운 다음, 끈을 묶는 것이다.

용두레는 깊은 곳에 고인 물을 높은 곳에 있는 천수답으로 퍼 올리는 재래식 양수도구로, 지방에 따라서 통두레, 파래, 품개, 풍개로 부른다. 만드는 방법은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게 파낸 뒤, 중앙부 양쪽으로 가는 구멍을 뚫어, 막대를 가로질러 끼운 다음, 끈을 묶는 것이다.

사용할 때는 기둥 3개를 원뿔형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용두레 끈을 매어 앞뒤로 움직이면서 물을 퍼면 된다. 처음에는 용두레로 물을 퍼다가 물이 깊어지면, 두 사람이 마주서서 각각 두 줄씩 쥐고 맞두레질을 해 물을 푼다. 용두레에는 30~40 l 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혼자서 1시간에 15~20t의 물을 퍼낼 수 있다.

### (2) 손이나 발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



바람개비

바람개비는 곡물에 섞여있는 검불이나 헝잡물을 날려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지름 1m 정도의 날개를 3~4장 정도 가지고 있고, 이 날개를 빨리 돌리기 위해 치차(기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력축보다 3~4배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바람개비로는 1시간에 벼 10가마를 선별할 수 있다. 지방에 따라 '팔랑개비'라고도 하며, 1900년대 초기에 일본에서 들어왔다.

### (3) 흙을 잘게 부수거나 땅을 판판히 고르는 데 사용하는 '씨래'



씨래

씨래는 긴 토막나무에 둥글고 끝이 뾰족한 이(齒) 6~10개를 빗살처럼 나란히 박고 위에 손잡이를 가로로 댄 도구로, 토막나무에 대각을 이루도록 긴 나무를 박고 여기에 붓줄을 매어 소 명에에 잡아매 사용하였다.

### (4) 소 등받이로 소 등에 얹어 물건을 나르는 '길마'



길마

길마는 말굽쇠 모양으로 구부러진 나무 2개를 앞뒤로 나란히 놓고, 안쪽 양 편에 2개의 막대기를 고정시킨 후, 안쪽에 짚으로 짠 어치를 대, 소의 등에 얹어 사용하는 도구다. 지방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대·중·소 크기가 있으며, 중간 짚은 15kg 내외, 적재량은 113~131kg 정도다.

### (5) 짐을 일 때 머리 위에 얹어 짐을 끄는 고리 모양의 '따리'



따리

따리는 지방에 따라 '또아리', '또가리', '또야리', '또바리' 등으로도 불린다. 주로 짚이나 왕골·골풀·형짚·죽순껍질 등으로 만들며, 짚이나 형짚을 둥글납작하게 틀어서 심을 만들고 왕골이나 골풀로 곱게 짜서 마무리한다. 따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끈의 끝을 입으로 물고 물건을 들어 얹기도 한다.



# 경남 고성군의 선사부터 이어진 기록들



## 1. 고성군 일반현황

### (1) 高城이 아니라 固城

고성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상남도에 존재한다. 물론 한자가 다르긴 하다. 강원도는 ‘높을 고(高)’를 쓰고, 경상도는 ‘굳을 고(固)’를 쓴다. 이제부터 굳고, 단단하고, 튼튼한 ‘고성(固城)’과 고성에 남은 기록물을 소개하려 한다.

고성은 경상남도 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으로는 바다를 끼고 서로는 사천시, 남으로는 통영·거제시, 동북으로는 창원시, 서북으로는 진주시와 접하고 있다. 고성군은 행정구역상 1읍, 13면, 119개 법정리, 262개 행정마을을 가진 곳이며, 면적은 516.9km로 경상남도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고성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마도 공룡모형일 것이다. 고성에서는 공룡과 관련된 박물관과 축제뿐만 아니라 도속도로 휴게소 이름에도 공룡이 들어간다. 고성군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때문이다. 물론 공룡이 남긴 역사의 자취는 몇 개의 발자국에 지나지 않지만, 고성에는 이 외에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중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통해 발굴한 고성 사람들이 소중히 간직해 온 역사기록물을 중심으로 고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성군 대표 마스코트인 공룡

### (2)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통해 만난 고성

고성에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통해 찾은 기록물은 총 440점이었다. 유형은 문서·고문서·도면/지도·간행물·박물·시청각 등이며, 이 중 시청각자료는 126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유형	문서	고문서	시청각	박물	간행물	도면·지도
수량(점)	172	35	126	49	49	9

시기적으로 분류하면 조선시대에는 통문, 교지 등의 문중기록물과 향교기록 등이 16점, 일제강점기에는 학교 생활기록과 면사무소 행정문서 등이 23점, 광복 이후 1946~50년대에는 토지 및 재산 관련 면사무소 행정기록 등이 45점, 1960~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등이 109점, 1980~1990년대에는 기록물이 110점, 기타 및 생산년도 미상기록물이 137점으로 조사되었다.

고성의 기록물을 살펴보다 보면 고성이 우리나라 남단의 작은 군이 아니라 고유한 기록과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고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 2. 고성향교와 유교정신을 잇는 유생들의 기록

### (1) 파란만장한 고성향교의 역사

고성향교에 들어서자 위풍당당한 명륜당이 과거 향교 유생을 짐작케 한다. 고성향교는 1464년에 처음 고성읍 향교동(현 고성읍 교사리)에 건립되어,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의 중등교육 및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7년(선조 40)에 현령 정여린과 도감 이현 등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1870년에는 고성군과 통영군이 통합되면서 통영군 선도면 죽림리로 이진되었고, 고성군이 환원되면서 1875년 다시 현재의 위치로 이진하였다. 이후 1983년, 경남문화재 제219호로 지정되었다.

고성향교에서는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행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제(朔望祭)를 행한다.



고성학교

### (2) 유생들이 남긴 기록들

#### • 고성향교유생안

유생안은 향교 교생들의 이름을 적어둔 서책으로, 현재 고성향교에 보관 중인 유생안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1900년에 만들어진 고성향교유생안이다. 향교 교생은 법제상으로 신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15~20세(시대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가 되어야 입학할 수 있었고, 교안에 올리지면 유학(幼學)의 직(職)으로 기록되었다. 교생이 되면 향촌사회의 사족으로 신분보장이 되고 군역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고성향교유생안

#### • 고성향교분향록

분향록은 향교행사 시 교생들의 역할을 적는 명부다. 교생들은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향교를 돌보고 향교의 여러 행사를 치러야 했는데, 향음주례(鄉飲酒禮)·백일장·망곡 등의 행사를 담당하는 교생을 집사 혹은 정교로 칭하고, 필요에 따라 교생 중에서 선발하거나 윤번으로 담당을 정하여 업무를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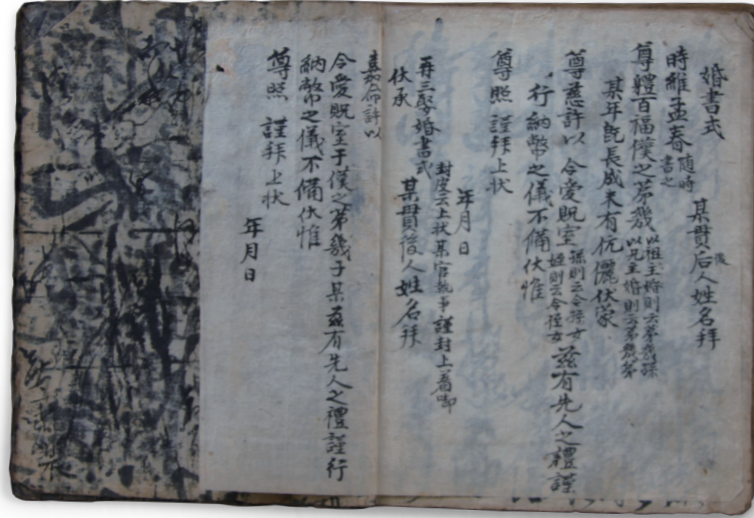


고성향교분향록



• 서식참고용 책

앞표지에는 책명이 없으나·부모님 전상서·각종 서신·혼인서약서 등 교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양식을 묶어둔 책이다.



서식참고용 책



고성 새마을운동 중앙회

• 새마을운동 고성지회 회관 설계도

1971년 중앙회 본부에서 내려온 표준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새마을회관은 고성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모두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도가 몇 개 남아 있지 않아 지금은 매우 희귀한 기록물이다.



새마을회관 설계도

• 시계와 라디오

사진 속 시계와 라디오는 새마을운동을 숭선수범한다는 공로를 인정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한 것으로, 새마을 역사기록을 모아놓은 고성지회의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를 정도

###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

#### (1)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새마을운동 사업

새마을운동 하면 1970년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는 노래 가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먹고살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각 지자체마다 있는 새마을운동지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새마을고성군지회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현재 고성의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Green Korea, Smart Korea, Happy Korea, Global Korea라는 중점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향의 발전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현웃 모으기 경진대회·하천정화운동·사랑의 집 고쳐주기·사랑의 김장 담그기·새마을 지도자 육성·외국인 새마을 교육·새마을방식 시범마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회 사무소에 가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박물이며 훈장, 옷가지 등 볼거리도 많다. 그중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국가 제일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각 지회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우수새마을지도자상, 훈장, 기념품 역시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러한 기록은 하나 둘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다.

사진 속 라디오를 보면,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의 붉은 마크가 눈에 띄는데, 세월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



새마을운동 표창 라디오



새마을운동 표창 시계

## 4. 말 모양의 돌이 있는 마을, 마암면

### (1) 석마상에서 유래한 석마리와 마암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마(경남민속자료 1호)

수호신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에 마을 이름을 석마라 하였으며, 이것이 마암면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고성군 마암면은 13개의 면 소재지 중 하나로, 소가야시대에는 곤의부곡과 발산부곡의 일부에 속하였으나, 1018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되면서 동마면과 서마면으로 나뉘어졌고, 1914년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통·폐합할 때 병합되어 화양면의 배둔 일부를 편입시키며 마암면으로 개칭되었다.

마암면의 유래는 석마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석마리에는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마(돌말)상이 마을의



마암면사무소

### (2) 캐비닛 문을 연 마암면사무소

면사무소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한 재산증명서, 개인기록증명서 등 모든 증명과 관련된 기록물이 있다.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민원서류를 뗄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면사무소에 찾아가 수기로 적혀 있던 서류를 복사해와야만 했다. 마암면사무소는 이번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통해 캐비닛의 문을 열어 켜켜이 묵혀 두었던 50년 된 기록을 공개하였다.

### (3) 마암면사무소에서 발견한 농지개혁 문서

대한민국 농지개혁은 8·15 해방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일제시대, 지주적 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를 확립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농지개혁의 토지 분배는 호당 2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작자에게 매각하였다. 매각 가격은 농지 생산물의 300%를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었는데, 1951년에 일반농지와 같이 150%를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반농지는 정부가 수립된 후 분배되었으며,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당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능력에 비해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으로 분배하였다.

바로 이러한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 관련 문서들이 마암면사무소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농지개혁 관련 문서

## 5. 선조의 기록을 소중히 간직한 마을사람

### (1) 시간을 거스른 고성 학동마을

학동마을은 전주 최 씨의 집성촌이 있는 마을로 돌담길이 유명한 곳이다. 마을 담장은 수태산 줄기에서 채취한 납작돌(판석 두께 2~5cm)과 황토를 결합하여 바르게 쌓았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에 마치 시간을 거스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학동마을 돌담길

### (2) 기록 속에 남아있는 가족의 숨결



학동마을 주민 최일용 어르신

학동마을에 위치해 있는 최일용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그의 집 장롱 안에는 보자기에 싸여진 기록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되고 낡은 기록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에게는 조부, 고조부와의 추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소장품 중 계시 학동에게 선현의 명언을 그대로 쓰게 한 체본(體本), 집에 온 과객들이 쓴 글과 그림 등을 소개한다.

#### • 수묵화 족자

이 족자는 고조부가 손부의 신혼여행 때 준 선물이다. 대나무와 난이 있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최일용 어르신 부부는 고조부를 회상하게 된다고 한다.



최일용 어르신 소장 수묵화 족자



• 안중근의 손도장이 있는 독립자금영수증

이 영수증은 고조부가 일제시기 독립자금을 준 후 받은 답례품으로, 안중근의 유명한 글귀가 있는 가품이다. 기록물 뒷편에 '3월 25일 금 13만 4천 원'이라고 흐리게 연필로 쓰여 있다.



• 향교 교생의 교재, 체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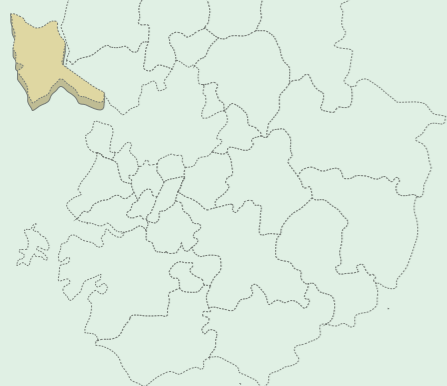
고조부가 향교 경연참찬관으로 재직할 때 교생들에게 명언을 그대로 따라 쓰게한 체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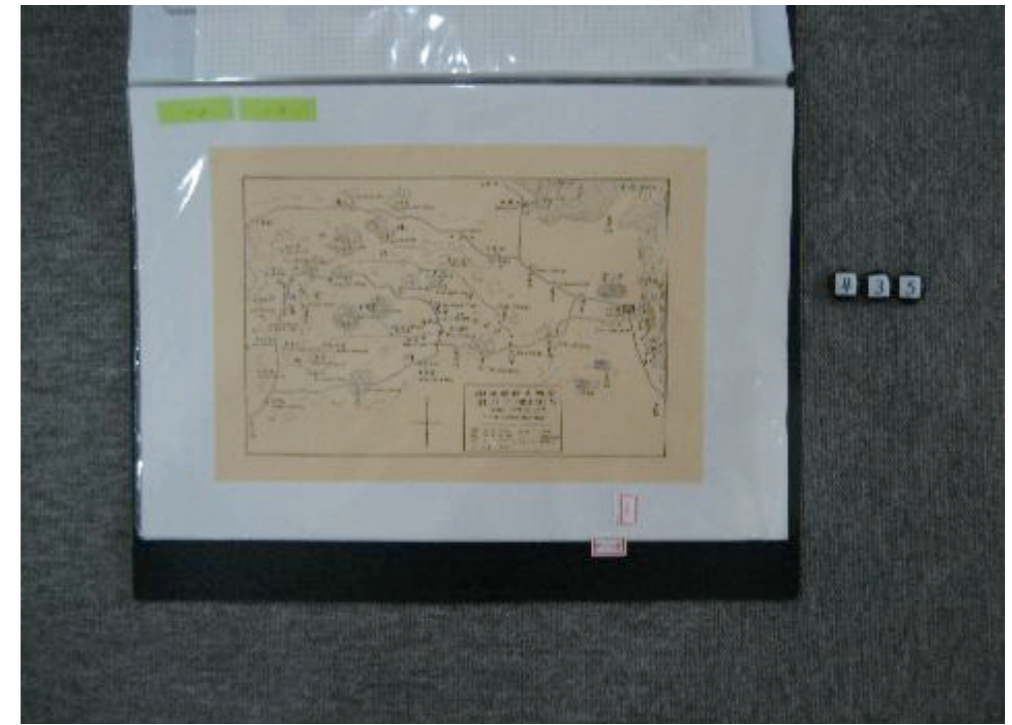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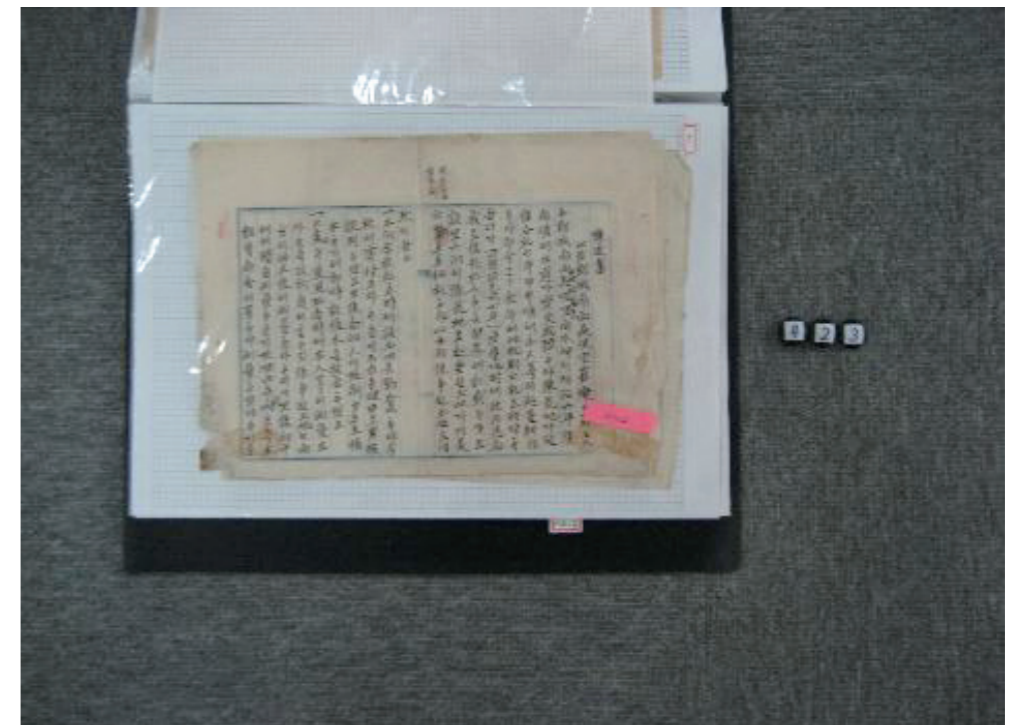
제 3 장

사진으로 보는  
내고장 역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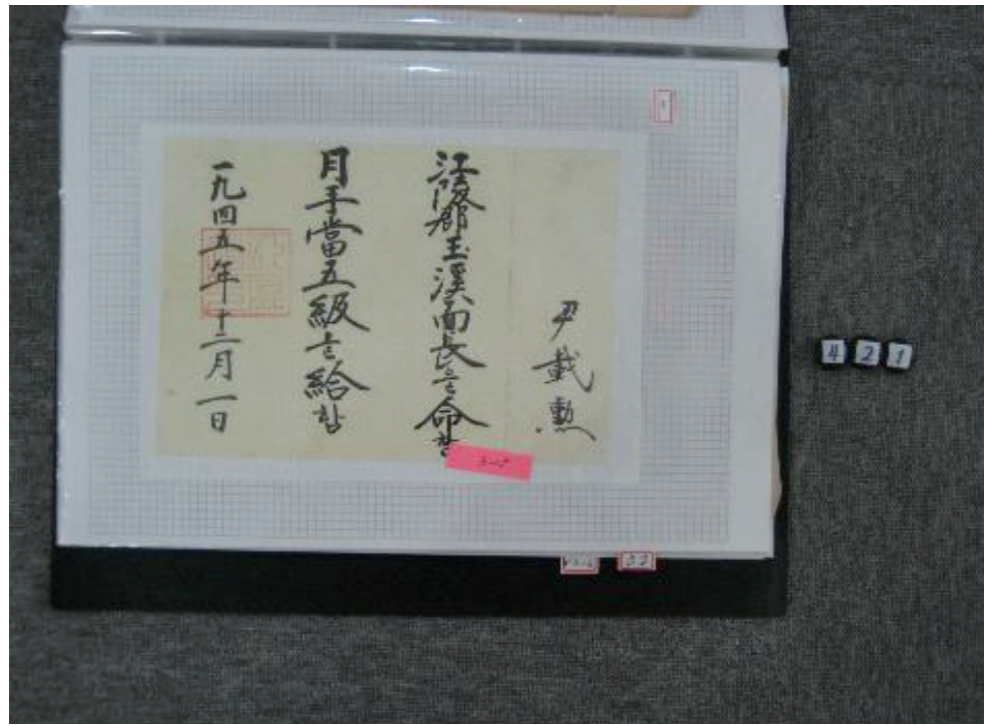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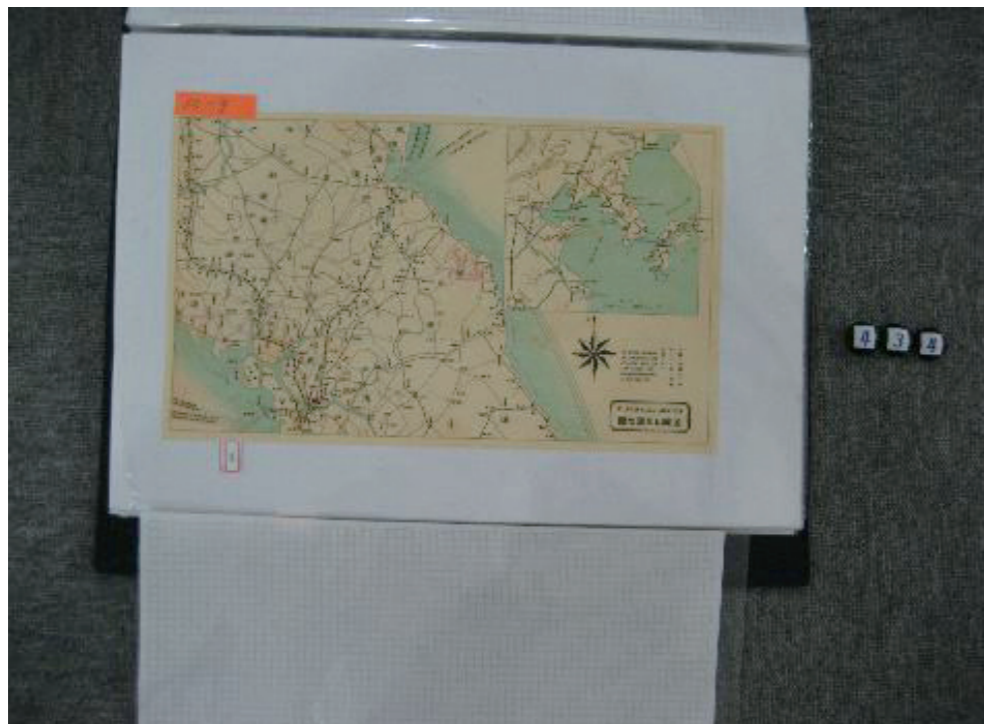
일본인이 작성한 금강산 지도\_강릉시(1910)



강릉군의 토지를 수년간 경작·관리한 주민에게 토지등록을 요청한 문서\_강릉시(1916)



강릉향약의 유학 박종혁을 약장으로 발급한 발령장\_강릉시(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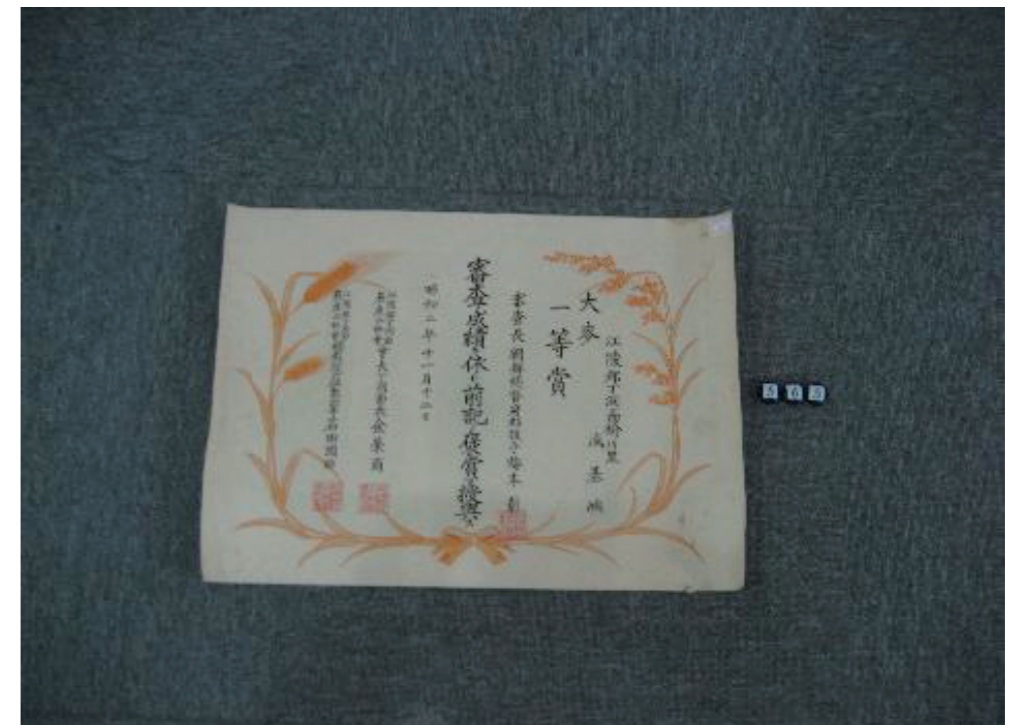


강릉시에서 발굴한 금강산 중심의 바다와 육지 연결 교통지도\_강릉시(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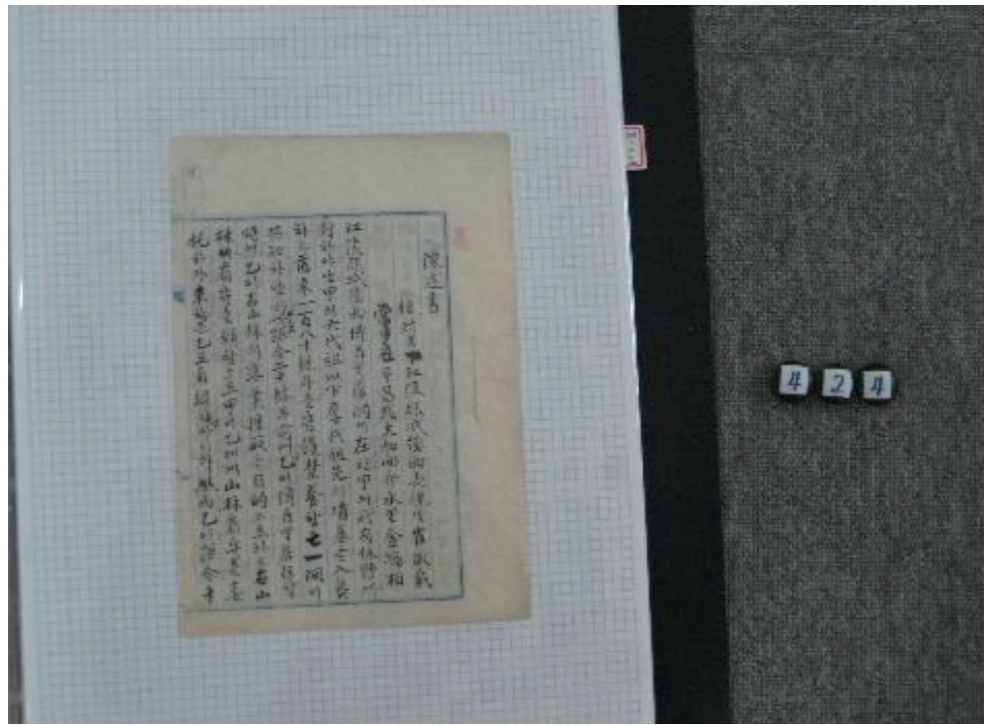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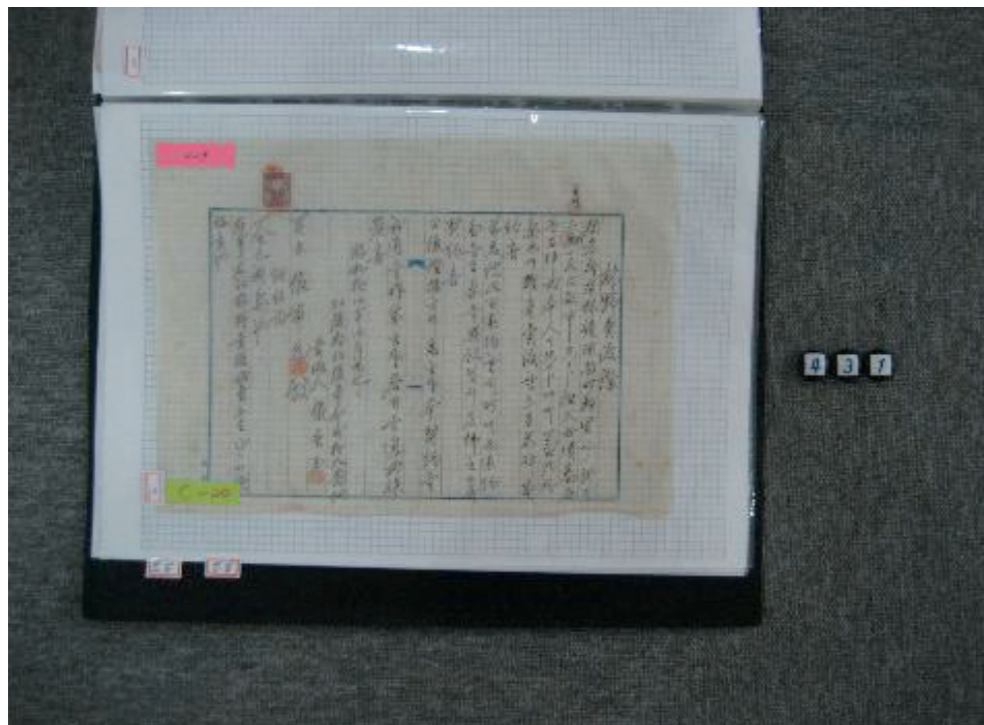
보리품평회 일등상인 대우일등상\_강릉시(1927)



대두품평회 일등상인 대우일등상\_강릉시(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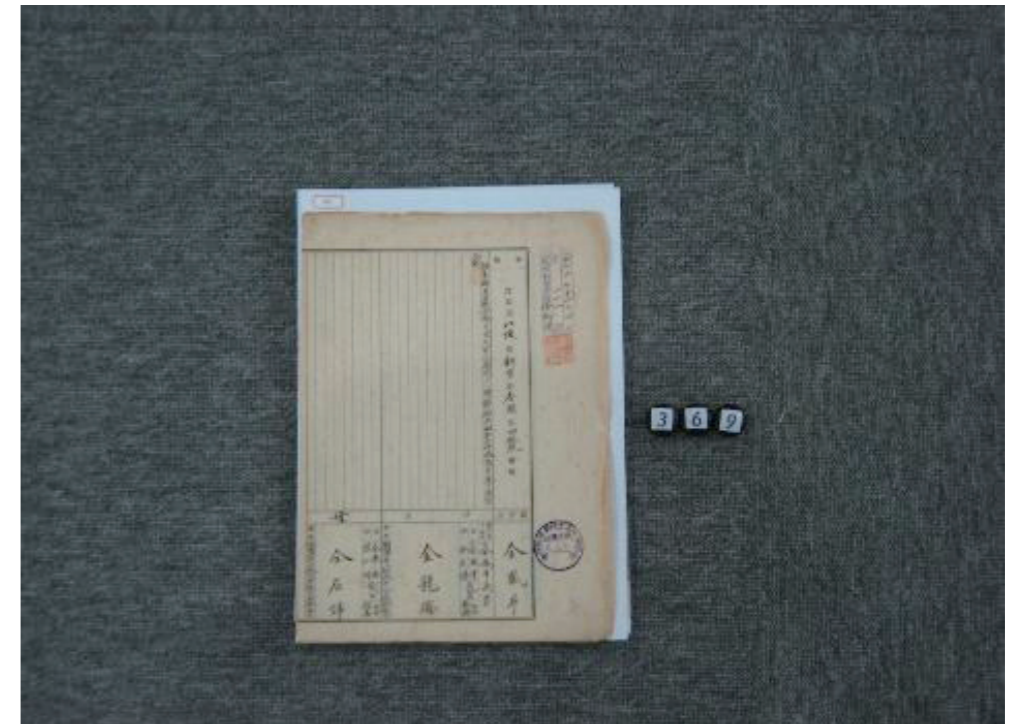


강릉시 산림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불법 토지 사용 시정을 요구한 진술서\_강릉시(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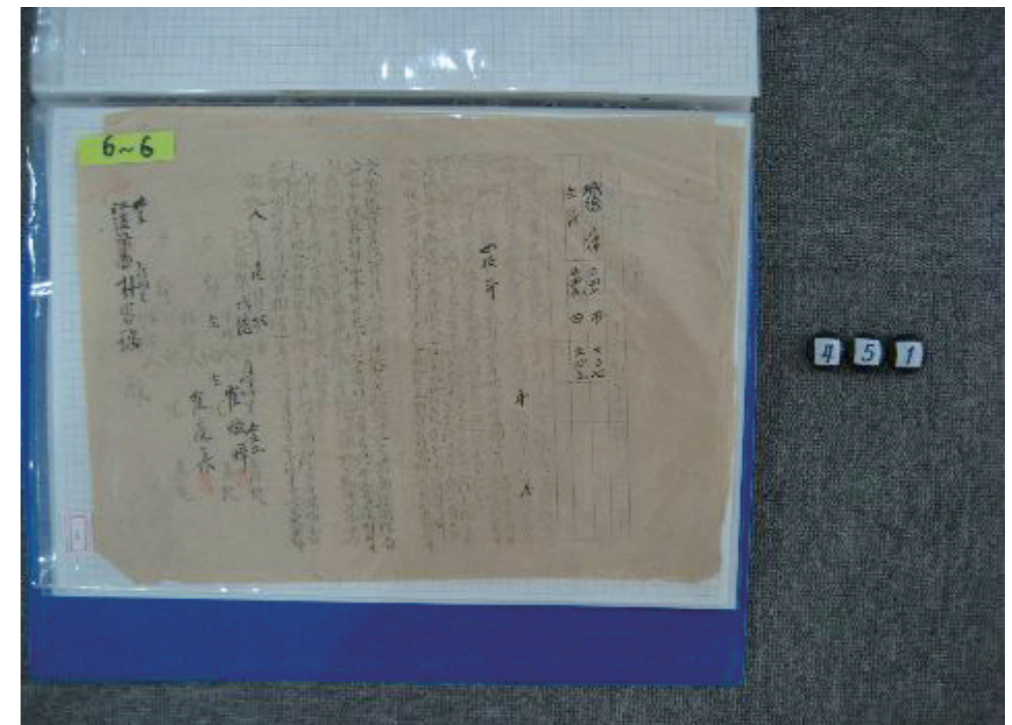


강릉시 임야 매도증\_강릉시(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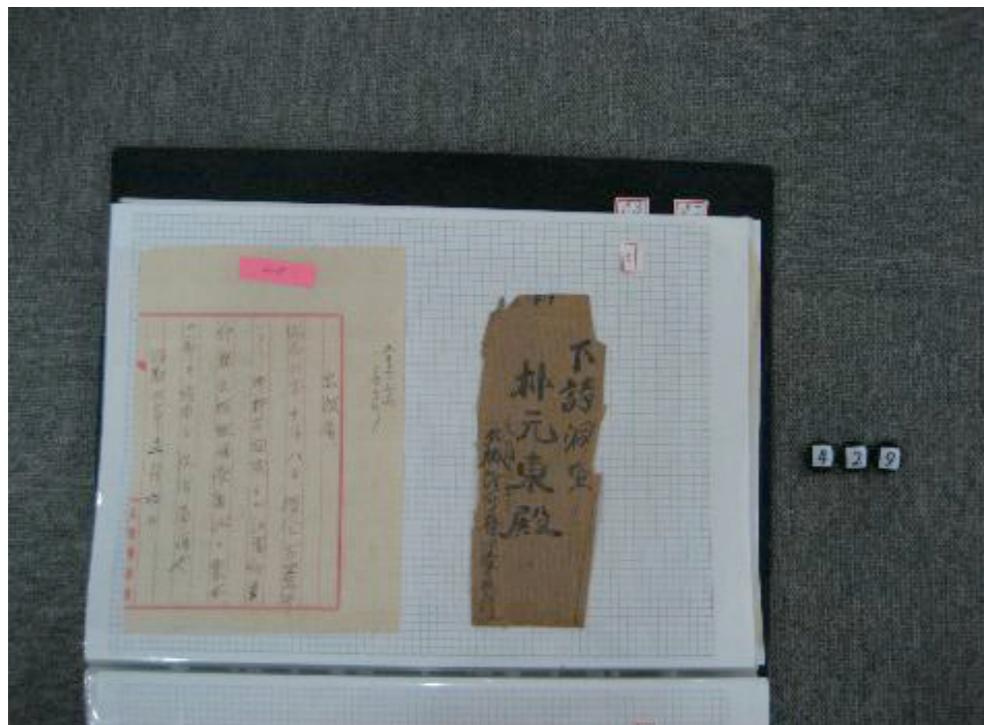
강릉시에서 발굴한 호적부\_강릉시(1931)



강릉시에서 발굴한 발 소작 계약 증서\_강릉시(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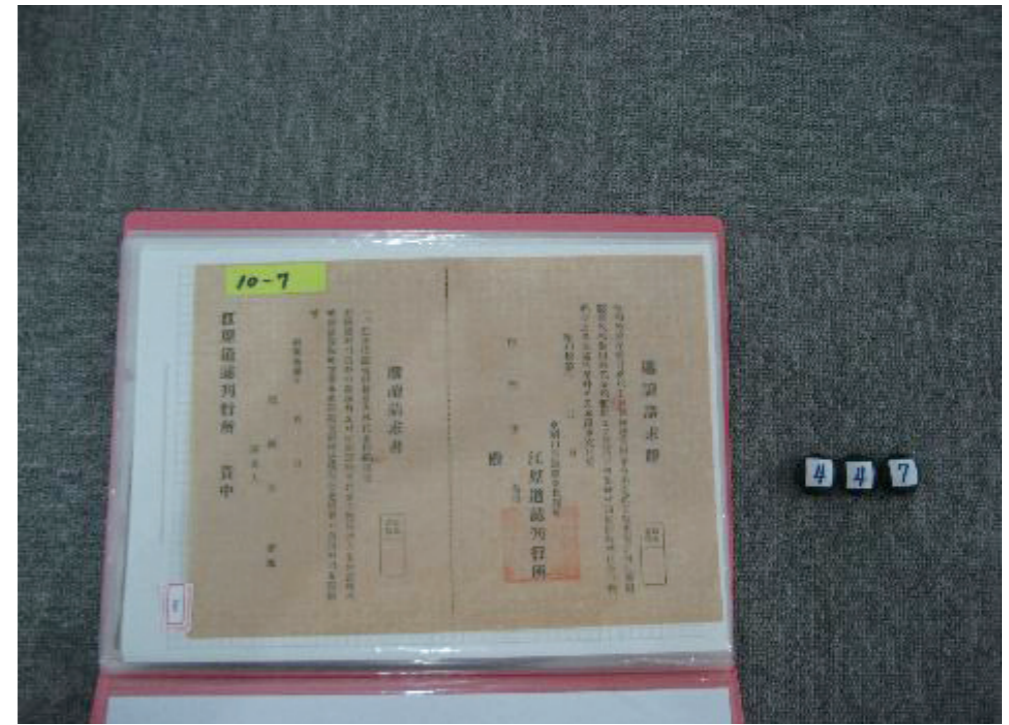


강릉시에서 발굴한 조선총독부 발행 출판허가서\_강릉시(1931)



강릉향현록을 발간하겠다는 출판신청서\_강릉시(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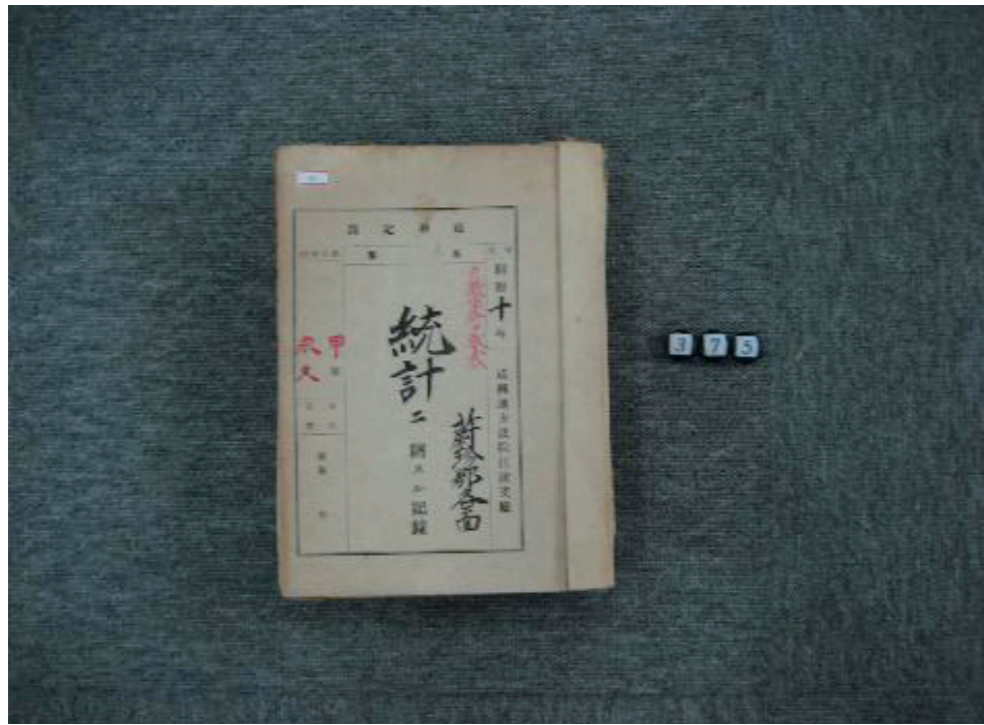




구독 청구증\_강원도(1938)



강릉군에서 사용하던 일용근무자 전표 서식\_강릉군(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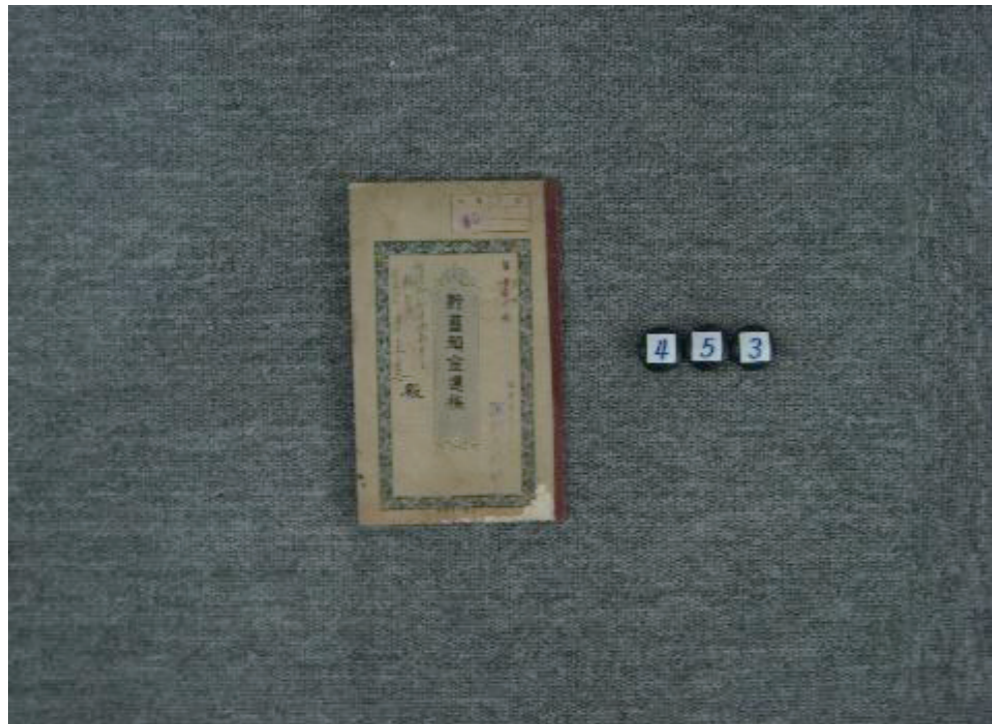


호적사건건수표\_강릉시(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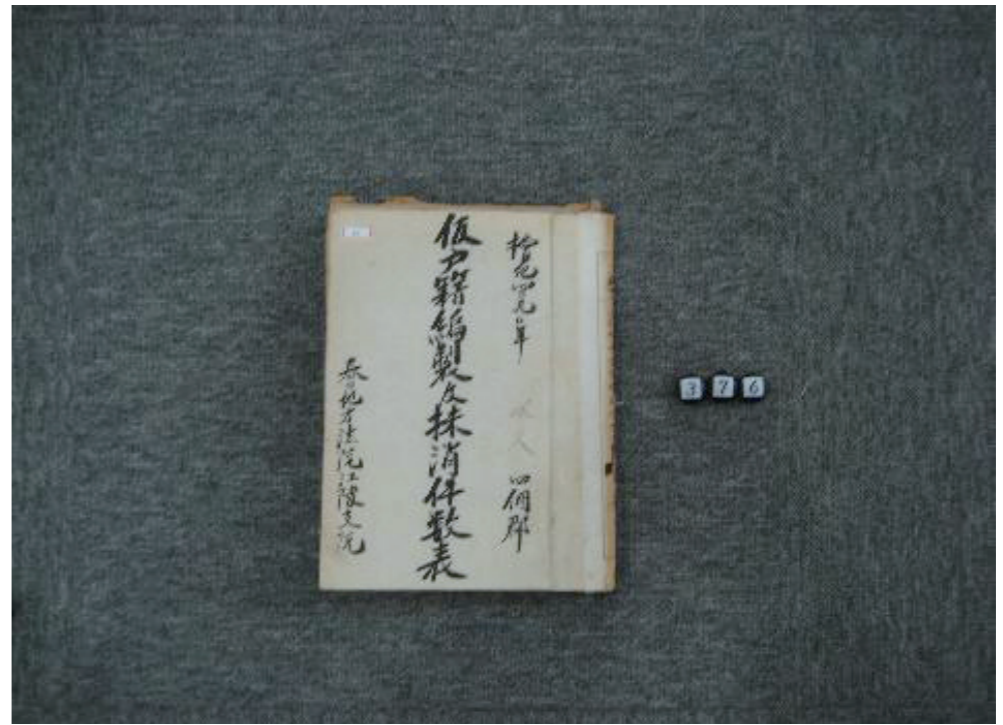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체신국장이 발행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_강릉시(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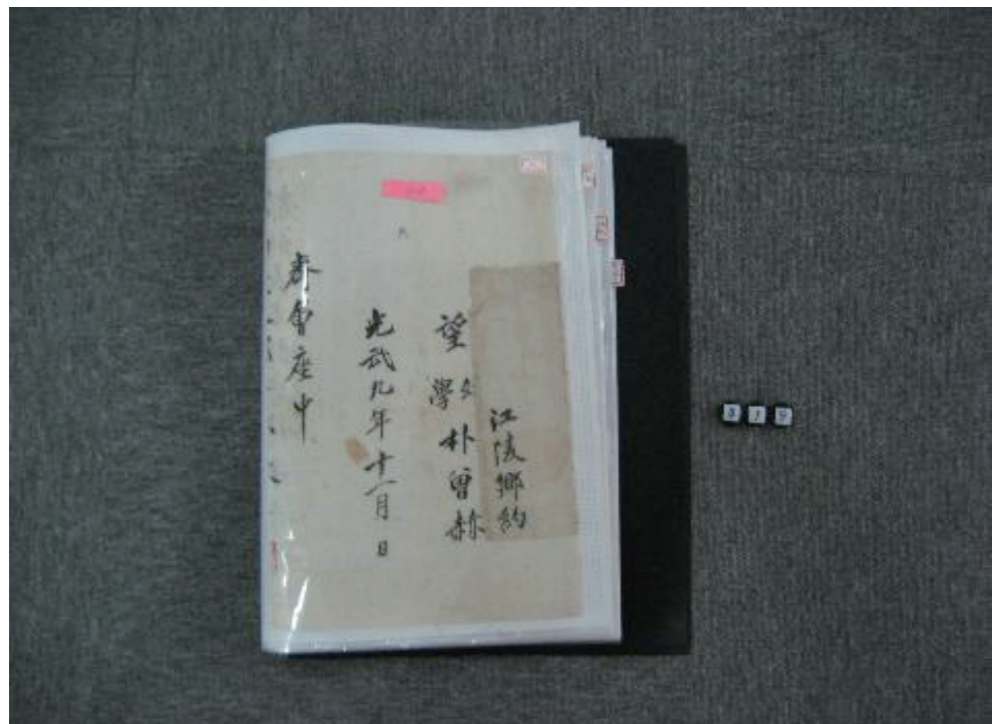




강릉군·명주군 금융조합이 발행한 저축예금통장\_강릉시(1944)



가호적사건통계표\_강릉시(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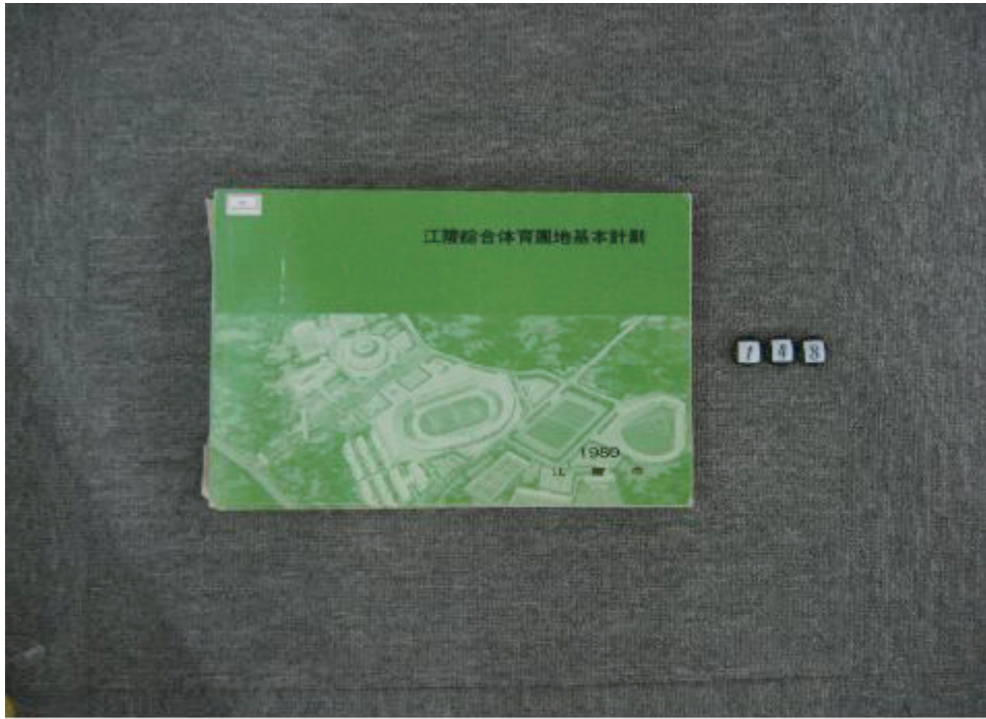


옥계면장 임명장\_강릉시(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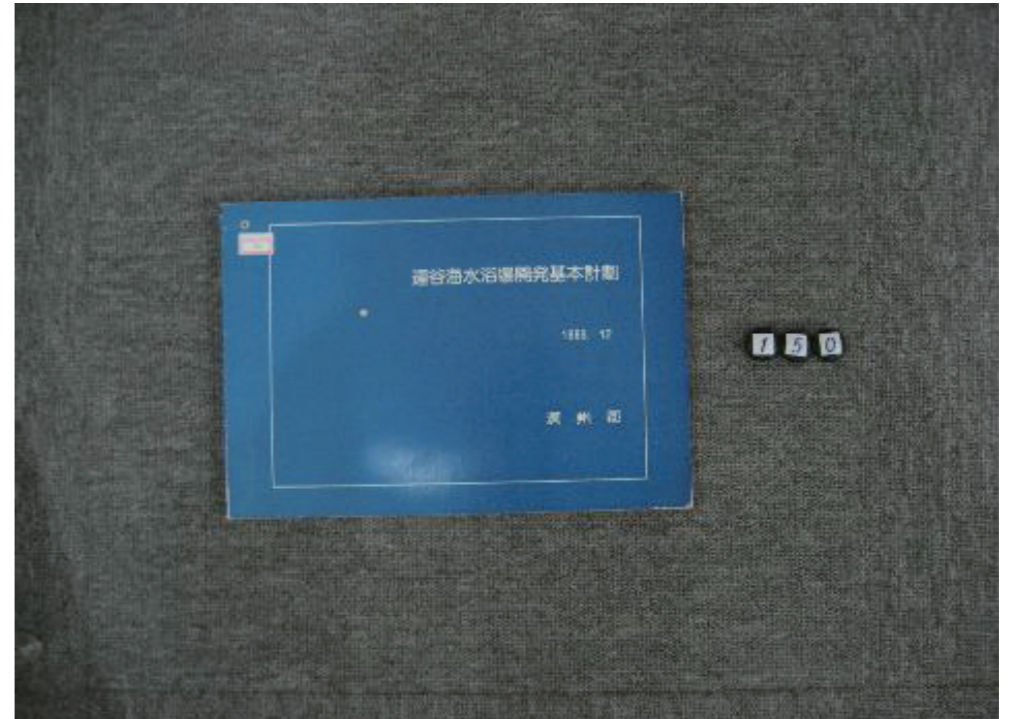


표준사양에 의거해 국내 최초로 제작한 전화기\_강릉시(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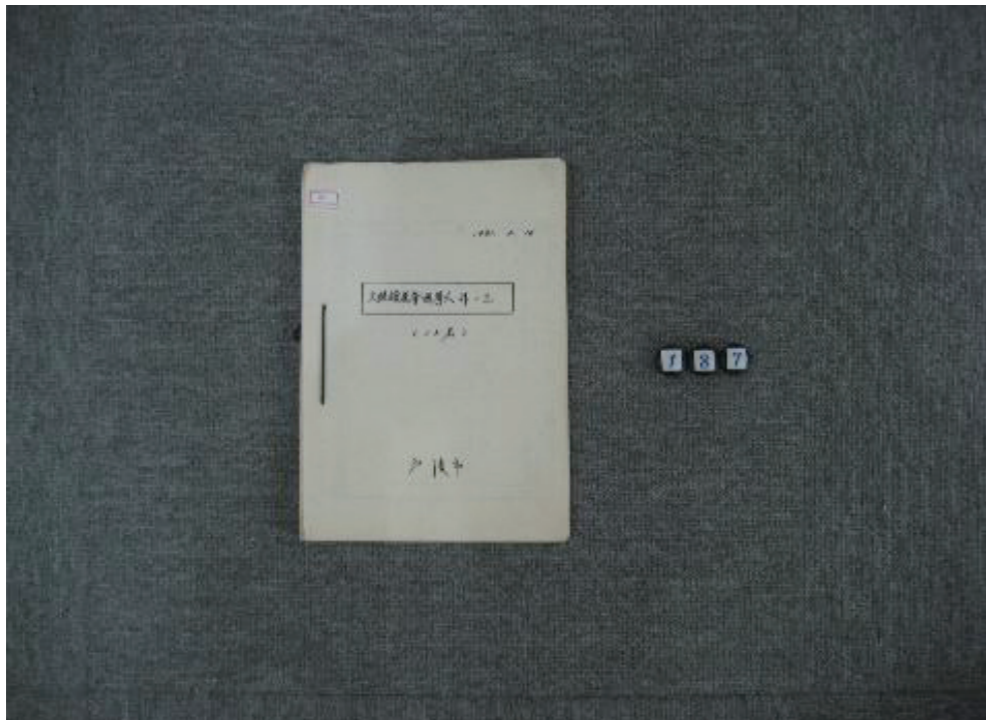




강릉종합체육단지 기본계획\_강릉시(1980)



연곡해수욕장 개발 기본계획\_강릉시(1983)



대통령선거인 카드\_강릉시(1981)



연곡해수욕장 개발 기본계획\_강릉시(1986)





보수지급명세서\_강릉시(1989)



서울 송파구 석촌동 삼전도비\_송파구(1956)



자유당 송파리사무소\_송파구(1956)



잠실시영아파트 기공식\_송파구(1974)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_송파구(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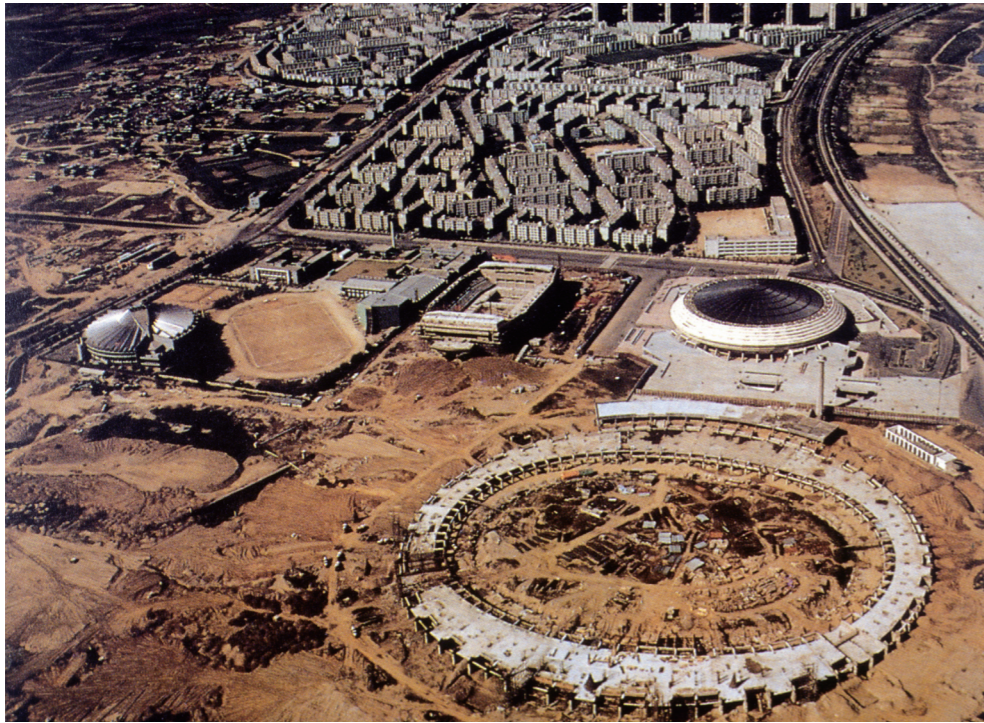




잠실 체조경기장과 수영장 건설\_송파구(1979)



지하철 2호선 건설\_송파구(1979)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_송파구(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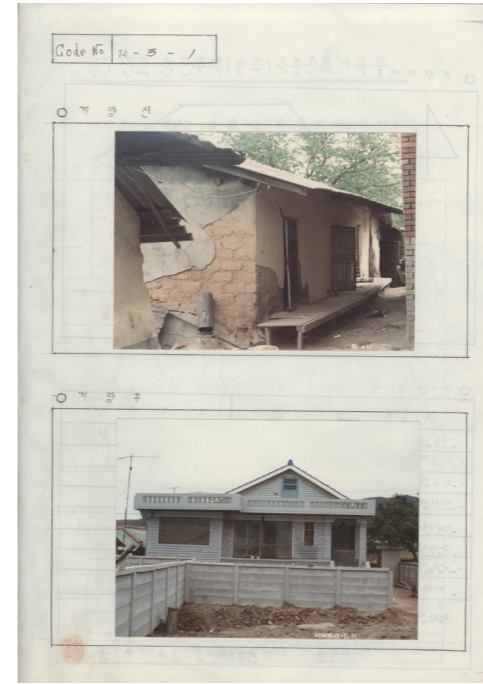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_송파구(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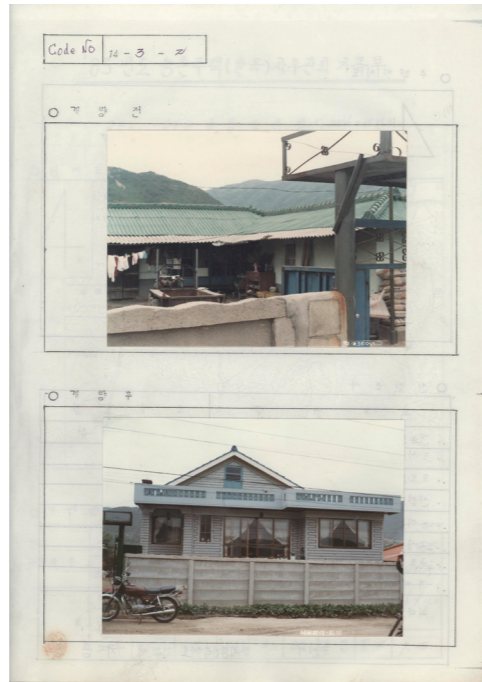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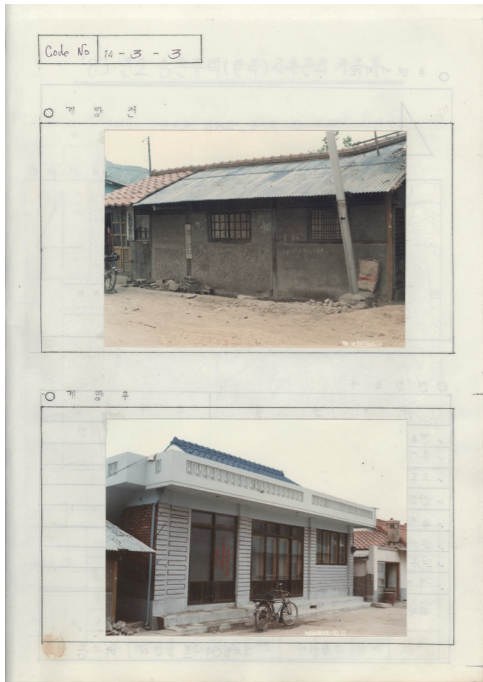




종합운동장 송파구(1980년대 후반)



취락구조 개선 사업\_철원군(1983)



취락구조 개선 사업\_철원군(1983)



제1회 상주 전국자전거축제\_상주시(1999)





제2회 상주 전국자전거축제\_상주시(2000)



옛 평화촌\_송파구



제5회 상주 전국자전거축제\_상주시(2005)



상주예술촌\_상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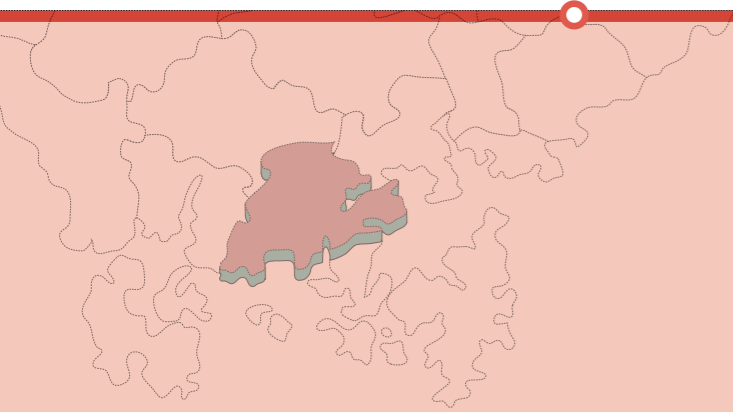
현 송파동 95번지, 당시 성동구 송파출장소\_송파구



현 개롱역 상아아파트 부근 모내기 하는 모습\_송파구



# 부록



[가장 오래된 기록물 Best 10](#)

[가장 많이 발굴한 지자체 Best 7](#)

[웹서비스 이용안내](#)





# 기록물 BEST

## 〈가장 오래된 기록물 Best 10〉

순위	소장처	기록물 제목	생산연도	발굴 지자체
1위	기계 달성 서씨 문중	분재기(달성 서씨)	1476	경상북도 포항시
2위	상주박물관	삼봉선생집 목판본	1487	경상북도 상주시
3위	상주박물관	필원잡기 목판본	1487	경상북도 상주시
4위	임동면 대곡리 김국진	대곡2리 당제사	1500	경상북도 안동시
5위	상주박물관	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1542	경상북도 상주시
6위	상주박물관	손중돈·권기목사선정비	1545	경상북도 상주시
7위	상주박물관	분재기	1554	경상북도 상주시
8위	포충사	포충사	1558	광주광역시 남구
9위	안산문화원	안산향교	1569	경기도 안산시
10위	상주박물관	문건록	1592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남행록	1592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임난일기	1592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조정임진난기록 중 임진일기	1592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조정임진난기록 중 남행록	1592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조정임진난기록 중 문건록	1592	경상북도 상주시
	대가면(김동관)	상언초기	1592	경상남도 고성군

※ 연도 미상 기록물 제외

## 〈가장 많이 발굴한 지자체 Best 7〉

순위	지자체	발굴 수량	문서	고문서	시청각	박물관	간행물	도면·지도
1위	경상북도 상주시	13,946			9,878	4,068		
2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5,030	2,484		2,546			
3위	강원도 강릉시	3,325	283	47	637	2,202	58	98
4위	경기도 안산시	2,663	1,758		436	28	441	
5위	대전광역시 서구	2,572	2,572					
6위	경기도 의정부시	2,280	2,204	8		68		
7위	광주광역시 북구	2,011	1,140		41	744	86	





# 웹서비스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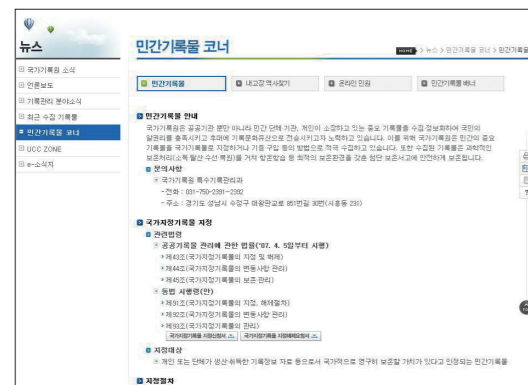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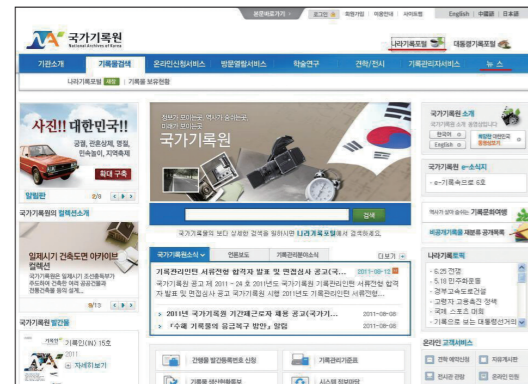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 민간기록물 코너

http://www.archives.go.kr → 뉴스 → 민간기록물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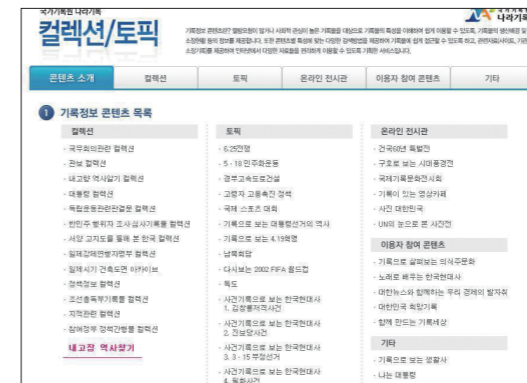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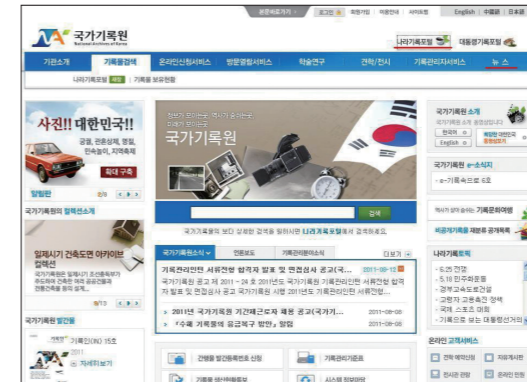
- 민간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내고장 역사찾기 내용을 볼 수 있음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신청서, 민간기록물 기증 신청서 등 다운로드 가능



## 내고장 역사찾기 콘텐츠 활용

http://www.archives.go.kr → 나라기록포털 → 컬렉션 토폭 → 내고장 역사찾기

- 내고장 역사찾기 목록 검색 · 다운로드 및 우수 콘텐츠 소개







**발행인** | 이경옥 국가기록원장

**발행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

**발행일** | 2011년 6월

**기획·편집** | 한순기 과장, 김명옥 사서사무관, 이현정 학예연구사, 윤의식 사서주사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시흥동 231)

**전화** | 031-750-2391

**팩스** | 031-750-2393

**홈페이지** | [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디자인·제작** | (주)씨마스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1-7 통일빌딩  
전화 02)2269-8280  
[www.cmass21.com](http://www.cmass21.com)